

YUHAN

NOW

2021 Vol.01



김경현
제6대 학생자치위원회 활동부장



Contents



창간호 특집

- 03 창간 안내
유한의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 04 창간 축하 메시지
창간을 축하합니다
- 08 매거진 안내
드루와 'YUHAN NOW'는 처음이지?
- 10 유한은 지금
힐링이 필요한 유한인이여 상상테라스로 모여라
- 12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제6대 학생자치위원회입니다
- 14 동아리 리뷰
나만 믿고 따라와, 유한 학생활동 탐방
- 18 교수 인터뷰
끊임없는 고민으로 비대면의 한계를 넘다
- 20 동문에게 묻고 듣다
방기석 총동문회장(전기과 83학번)
김창수 장군(전기과 84학번)
- 24 졸업생 인터뷰
자신과 학교를 믿고 세무사에 도전하세요
- 26 명사 인터뷰
저마다의 소우주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
- 28 특별 기고
정답이 지닌 모순을 생각한다
- 30 책사부일체
자신만의 계절을 기다리며 생각의 씨앗을 기르세요
- 31 재학생 인터뷰
Design your Dreams Bigger
- 32 해시태그 학과열전
2021년 신설학과 소개
- 38 취향저격 알고리즘
집콕러들을 위한 추천템
- 40 언택트 투어
런던으로 떠나는 서점 투어
- 42 슬기로운 캠퍼스 생활
Yuhan TURST 교육인증
유한대학교 장학금 A to Z
- 45 드림 인큐베이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
- 46 들여다보기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너라서 좋은거야
- 47 캠퍼스꿀팁
국가근로 알바
- 48 YUHAN NEWS
2021년 유한대학교 주요 뉴스

COVER STORY

창간호 표지의 주인공은 훈훈한 비주얼과 자연스러운 포즈로 촬영 현장을 후끈 달군 김경현 학생입니다. 학생자치위원회의 카리스마와 스물넷 청춘의 캐주얼한 모습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발행일 2021년 08월 31일 통권 제1호 발행인 김현중 편집인 박시현
발행처 유한대학교 미디어홍보센터 전화 02-2610-0411 제작 (주)대동기획 02-2269-3613



'YUHAN NOW'는
친환경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창간 안내

Debut Debut

유한의
지금

이야기 합니다

'YUHAN NOW'는 유한의 지금을 이야기하는 매거진입니다. '유한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을까? 특 터놓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블로그와 학보 등을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지만 좀 더 단정하고 아끼지기한 모습으로 한 권의 책으로 엮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YUHAN NOW'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매거진입니다. 함께 수업 듣던 친구가 매거진의 표지가 된다면 반가운 마음에 한 번 더 보고 싶어질 겁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또래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학생들의 이야기도 그 진심을 꼭꼭 눌러 담아 인터뷰로 실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부신 내일을 위한 학교의 노력, 각종 도움이 되는 정보도 가득 담았습니다. 'YUHAN NOW'는 유한만의 정체성을 멋지고 쿨하게 드러내는 매거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퍼뜨리고,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는 첫 'YUHAN NOW'를 만나볼까요?

젊어서 구하라 늙어서 부유하리니

「YUHAN NOW」가 창간된다니 기쁩니다. 이 매거진은 유한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강의실에서, 캠퍼스에서, 또는 그들의 외로운 자취방에서나 카페에서 함께 어울려 꿈꾸던 이야기들로 채워질 것이며 그들은 꿈의 공장에서 생산된, 오래된 미래의 다양한 제품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에버랜드나 디즈니랜드가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주듯이 호기심이 넘치는 흥미진진한 놀이마당으로 우리를 초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거진이 과도한 학문적 엄숙주의를 벗어나 흥겹고 신나는 놀이마당을 한바탕 보여줄 작정이라면 저도 거기에, 그들이 꿈의 놀이터에 함께 어울리고 싶습니다.

유한의 젊은이들이여, 온갖 권위와 제도에 주눅 들지 마세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여러분의 빛나는 청춘을 헛되이 탕진하지 않기 위하여, 먼저 거침없이 즐기세요. 세상이 제아무리 고달프고 험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해도 이 세상의 중심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것이며 세계의 미래도 당연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당과 억압과 압제도 뿌리치고 도전하세요. 그 용기가 정의롭고 청춘의 이상과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사회도 역사도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노년까지 이끌고 가지만 않는다면 무방합니다. 젊어서 구하면 늙어서 풍요해진다는 괴테의 말처럼 젊은 시절의 도전과 반항, 미래에 대한 몽상과 상상의 치열한 추구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사회, 그리고 역사를 풍요롭게 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매력적인 매거진을 기획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된 우리 유한의 청춘들에게 이 매거진은 신선하고 생기발랄할 자극이 될 것이며 우리 유한학원을 한층 신명 나고, 즐겁고, 풍요롭게 하는 광장이 될 것입니다.

유한학원 이사장 **홍기삼**



「YUHAN NOW」를 발행하며

안녕하세요? 「YUHAN NOW」의 발행인, 유한대학교 총장 김현중입니다. 유한대학교 매거진 「YUHAN NOW」의 첫 호를 드디어 세상에 선보이게 되어 기쁩니다. 「YUHAN NOW」는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학교 소식을 제공하여 구성원 간의 소통과 외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지금의 20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취향을 드러내는데 스스럼이 없고 서로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은 서로의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래들과 활발히 소통을 이어나갑니다. 「YUHAN NOW」는 유한인에 의한, 유한인을 위한 매거진입니다. 스무 살 청춘이자 유한인으로서 서로를 좀 더 깊게 알아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을 나누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소통의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유한대학교 학생들이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인재가 되고, 또 우리 학교가 그런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학보를 발전·계승하여 더욱 심도있는 소식들과 우리 대학교의 이야기를 담고, 대학과 학생, 산업체,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매거진 「YUHAN NOW」를 새롭게 창간함으로써 유한대학교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학생들과 구성원들의 사랑을 받는 「YUHAN NOW」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학생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성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대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장 **김현중**



「YUHAN NOW」가 활기찬 소통의 시작이 되길

안녕하십니까! 학우들과 소통하며 발전으로 보답하는 제6대 학생자치위원회 보건의료행정학과 위원장 박현수입니다. 유한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YUHAN NOW」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제6대 학생자치위원회 역시 유한인의 일원으로 「YUHAN NOW」를 통해 더 많은 유한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자치위원회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자치 활동을 위하여 창조적인 학문 탐구와 올바르게 생명력 있는 대학 문화를 건설하여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민주 시민 자질을 함양하며 나아가 선진조국의 기술인으로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기구입니다.

저희는 항상 학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학우분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하고 싶은 말이 아닌 학우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학생자치위원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학교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항상 솔선수범하며, 초심불망의 자세로 모범이 되는 제6대 학생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대 학생자치위원회 위원장 **박현수**



「YUHAN NOW」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결같은 다짐으로 정직함을 추구하는 제36대 유한 대의원회 정보통신학과 정보통신전공 의장 신현대입니다. 우선 2021년을 맞이하여 유한대학교를 찾아주시는 신입생 여러분과 모든 학우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식 석상에 서서 직접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대의원회는 유한대학교 학생회의 심의 의결 및 감사기구로서 각 학생회가 학우들을 대변하는 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학회비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학우들을 대변하여 학생회비 사용을 감사하는 자치기구입니다. 대의원회의 업무로는 학생자치사업에 대한 감사와 회원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하며, 학생 간부에 대한 탄핵소추권, 임원 및 해임 요구권,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과 불신임 결의권 등을 행사합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든 교직원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저희 대의원회는 학우들을 대표하는 학생 간부로서 항상 정직한 태도로 유한 학우 여러분의 권익과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YUHAN NOW」의 발행을 축하드리며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제36대 대의원회 의장 **신현대**



창간을 축하합니다

재학생 축하 메시지

앞으로 유한인의 관심을
자양분으로 깊게 뿌리내리고
무성한 푸른 잎을 피워낼
『YUHAN NOW』,
창간호 발행을 기념하여
『YUHAN NOW』의 주인이자
가장 열렬한 독자가 될 학생들이
애정 어린 축하인사를 전해왔다.

『YUHAN NOW』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유한대학교 매거진의
힘이 되어주세요~ :)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중국비즈니스전공
20학번 김지유

『YEBS』와 학보사의 후예...
좋은 활동 바랍니다.
파이팅 (´▽`)***
식품영양학과
19학번 주영은

YEBS 방송부와 학보사가 2021년부터
더 다양한 콘텐츠로 채워진 『YUHAN NOW』로
첫 출발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첫 출발이라 어렵고 힘든
부분들도 있고, 부담도 크겠지만
모두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일본비즈니스전공
19학번 서유진

『YUHAN NOW』
창간 축하드리고,
새로운 콘텐츠 많이
기대하고 있을게요. 파이팅~~~~
기계공학과 기계시스템전공
20학번 김세원

창간을 축하하고
미디어홍보부 친구들 파이팅!
너무 잘하려고 부담가지지 말고
열심히 하면 잘 하게 될 거야!
3D프린팅금형공학과
19학번 황주환



창간을 축하합니다!
유한나우의
한계 없는 도전
나와 우리가 함께할게요!
메카트로닉스공학과
20학번 김도경

『YUHAN NOW』 창간을 축하합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수준 높은 콘텐츠를
창조한 미디어홍보부 위원들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학년을 미디어홍보부 편집국장으로서
팀원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미디어홍보부가
승승장구하길 기원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융합학과
19학번 홍한솔

힘든 시행착오 끝에 좋은 이름과
풍부한 내용으로 창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캠퍼스라이프를 더 효율적
으로 꾸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융합학과
19학번 송지수

『YUHAN NOW』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YUHAN NOW』가 학생들의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길 응원합니다.
앞으로 유익하고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식품영양학과
19학번 권주연

『YUHAN NOW』 창간을 축하합니다!
학생들과 선생님, 교수님들의 노력이
녹아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더욱 뜻 깊게
느껴지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꾸준하게 발간하여 앞으로 더욱
성장하길 바랍니다.
경영학과 경영정보전공
19학번 송에스더

『YUHAN NOW』 창간을 축하합니다!!
2021년 창간호를 만들면서
어렵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람'이라는 단어 하나로
견딜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미디어홍보부 파이팅♡♡
아동보육학과
19학번 김유림

새로운 시작인만큼
으샤으샤하면서 앞으로
쭉쭉 잘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경영학과 유통물류전공
17학번 김상우

먼저 『YUHAN NOW』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학교와 학생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채워진
<YUHAN NOW>를 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각디자인학과
20학번 김지혜

『YUHAN NOW』를 통해 대학 생활을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간 정말 축하하고
앞으로 오래오래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
호텔관광외식조리학과 호텔관광전공
20학번 김상은

유한대학교 미디어홍보부의
『YUHAN NOW』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교의 중요한 소식을
앞서 전달해주길 바라겠습니다. :)
시각디자인학과
19학번 김희정



안녕하세요~♡
『YUHAN NOW』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저도 작년 1학기까지 신문방송국의
일원으로 기자활동을 했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개편되어
미디어홍보부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더욱더 반갑네요. ㅎㅎ
나중에 후배님들과 간사님
꼭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일본비즈니스전공
19학번 박지수



『YUHAN NOW』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졸업생이라 실물을 못 보는 게
너무 아쉽네요 b
테크노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
19학번 박채원



드루와!

유한나우는 처음이지?

미디어홍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YUHAN NOW」의 세 가지 매력

Opening

오늘의
유한인들을
만나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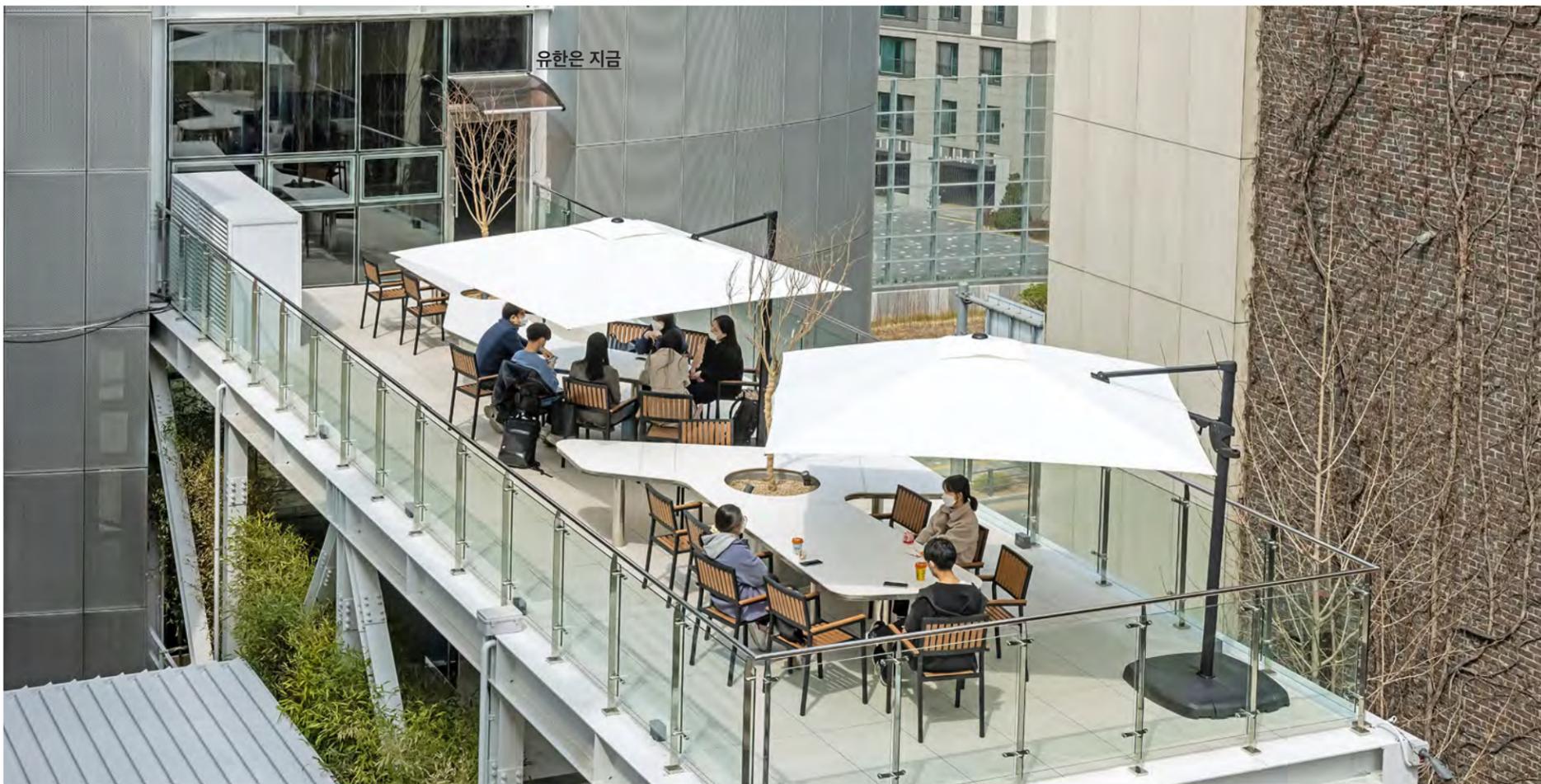
어느 세대보다 자신에게 집중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20대. 나 자신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색하며 나를 드러내는데 거리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는 학교에서, 친구 모임에서, SNS에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서로를 탐색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진짜 나'만의 개성과 정체성을 만들어가죠. 내일의 더 나은 나를 위해 오늘의 나를 열심히 가꾸려는 유한인들을 만나봅시다.

1 **야! 너두? 나도! '유한'이라는 이름으로**
「YUHAN NOW」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유한인이라서 공감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재학생들의 깊은 고민은 물론 앞서 학교를 빛내는 동문과 교수님들의 따뜻한 조언을 인터뷰로 소개합니다.

2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콘텐츠**
기획부터 취재, 원고 작성까지 「YUHAN NOW」는 미디어홍보부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미디어홍보부로 연락주세요.

3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만나요**
앞으로 「YUHAN NOW」는 1년에 두 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가합니다. 매거진, PC,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만나보아요!





힐링이 필요한 유한인이여 상상테라스로

몬여라~

유한인의 새로운 아지트, 상상테라스

눈부신 햇살만큼 화사한 학생들의 미소로 다시 채워진 2021년 봄과 여름. 유한대학교 캠퍼스는 유난히 싱그럽고 초록의 내음이 가득하다. 따스한 햇살 아래 학습과 휴식, 그리고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상상테라스를 사진으로 만나본다.



“ 우리는 제6대 학생자치위원회입니다 ”

여기 포부가 남다른 제6대 학생자치위원회 여섯 명이 모였다. 작년 한해 제대로 캠퍼스 생활을 누리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올해는 준비한 것이 많다. 많이 기대해달라며 어깨를 으쓱하는 품이 심상치 않다.

(왼쪽부터)

문화복지부장 **표수아** 관광외식조리학과 외식조리경영전공

사회체육부장 **고명준** 경영학과 유통물류전공

여학생부장 **윤희정** 전기공학과

활동부장 **김경현** 시각디자인학과

총무부장 **이수정** i-패션디자인학과

위원장 **박현수** 보건의료행정학과

학생자치위원회를 소개해주세요.

유한대학교 학생자치위원회(이하 학자위)는 활기차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위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유대를 쌓고 건의사항을 대변하는 등 유한대학교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자치기구입니다. 저희 제6대 학생자치위원회는 위원장인 박현수 학생, 사회체육부장 고명준 학생, 활동부장 김경현 학생, 여학생부장 윤희정 학생, 총무부장 이수정 학생, 문화복지부장 표수아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하반기 위주로 활동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현재보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버들대동제,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동아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하면서 활동이 많이 줄었는데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박현수 늘 학생들과 소통하며 불편한 점 없이 학교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명준 학교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게 뿌듯해요.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현 학사 일정이나 활동 계획 등에 대해서 학자위와 많이 소통하면 좋겠어요. 안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얘기해주세요~!

윤희정 저와 같은 학생들을 대표해 더 나은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6대 학생자치위원회 덕분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어요^^

이수정 학교와 학생의 소통 징검다리가 되어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의 소통이 먼저인 거 알죠?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표수아 걸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친구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주면 다른 바람이 없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의 좋은 점은?

박현수 저는 우리 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가 취업률도 높을뿐더러 전문학사 과정이 있어서 선택했는데 실제로 다녀보니 학과 실습 자원이 너무 만족스럽고 또 교내 편의시설도 좋습니다.

고명준 여러 가지 장학금 혜택이 뽕뽕하다는 게 가장 좋고 정말 든든해요.

김경현 편의시설과 실습시설이 너무 좋는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누리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윤희정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분들까지 너무 좋으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수정 장학금 혜택이 많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등록금이 부담됐었는데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다 보니 성적 장학금이 따라오더라고요.

표수아 학과 전공 커리큘럼을 보면서 거듭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 같이 걸어가는 대학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아쉬웠던 점과 그래도 기억에 남는 점은?

박현수 행사와 축제를 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워요. 2019년에 행사를 했을 때 정말 재미있었던 거예요. 작년의 아쉬움을 담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명준 친구들과 빨리 친해지지 못한 게 제일 아쉬워요. 2학기 때 부분적으로 대면 수업을 하면서 자기소개회를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김경현 대부분의 강의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실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어요.

윤희정 OT와 MT도 못 가고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쉬운 와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친구들과 소소하게 놀면서 고등학교 때 꿈꿨던 대학생활을 조금이나마 누리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이수정 가장 기대했던 OT와 MT, 그리고 축제를 즐기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져서 축제를 꼭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과제를 위해서 동기들과 웅기종기 모여서 공부했던 게 가장 기억납니다.

표수아 실습이 주된 학과인데 학교에 나온 적이 10번도 안 돼서 너무 아쉬웠어요. 라테아트 시험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결국 취소됐지만 친구들이랑 우유를 많이 사서 몇 시간씩 연습했던 게 재밌었어요.

5년 후,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진로 등 같은 고민을 가진

또래 친구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박현수 원하는 취업처에 취업해서 지금에 만족하고 뿌듯해하며 지낼 것 같아요. 본인의 장점을 살려 부딪혀보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면 취미생활도 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을 보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다른 친구들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고명준 어엿한 유통물류 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만의 사업을 시작해 유통물류 분야에서 제 기업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도 시작되었으니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며 모두들 아자! 아자! 파이팅!

김경현 5년 후의 저는 웬지 노트북 들고 다니며 바쁘게 일만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들 대학에서 공부도 노는 것도 전부 즐기고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정 5년 후에는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니는 신입사원이면 좋겠고, 10년 후에는 말은 일을 능수능란하게 해내는 베테랑 사원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모든 일이 미래에 나를 높은 곳에 데려다줄 날개가 될 거라 생각하고 모두들 '너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거야'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정 전공을 살려 패션회사에서 커리어를 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미래를 생각하며 쫓기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지금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많이 경험하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표수아 5년 후의 저는 직장 생활로 바쁘게 지내고 피곤에 지쳐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퇴근 후 집에서 맥주 한 캔 마시며 행복해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취업 때문에 더욱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다들 미래를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끔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인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만 믿고 따라와, 유한 학생활동 탐방

2021년 추천 학생활동

캠퍼스라이프에 낭만 한 방울을 첨가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학생활동에 집중해보자. 운명처럼 동아리 하나가 당신의 가슴에 날아와 꽃피지도 모를 일이다.

미디어홍보부 'YUHAN NOW'

김우진 부장 (보건의료행정학과 20학번)

유한의 소식을 모아 널리 퍼뜨리다

이름을 보면 알다시피 「YUHAN NOW」를 만드는 학생활동이다. 2020년까지 따로 활동하던 방송국과 학보사가 올해부터 둘을 합쳐 미디어홍보부로 새로 태어났다. 학생들이 직접 카메라를 잡고 촬영해서 방송하거나, 매거진 제작에 참여해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쓰는 등 '유한의 지금'을 기록하는데 열심이다. 특히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주요 학교행사에 참여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YUHAN NOW만의 특별한 점이다. 미디어홍보부 부장은 보건의료행정학과 김우진 학생이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생활을 잘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려고 방송국에 지원했다가 적성에 잘 맞아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미디어홍보부 부장까지 겸하고 있다. "방송국과 학보사가 갑자기 통합되는 바람에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서로 잘 맞춰나가면서 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 자신을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는 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디어홍보부로 활동하면서 유한인과의 소통을 위해 늘 고민하는 YUHAN NOW. 새로운 이름에 걸맞게 '지금'의 유한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일'의 유한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항상 주시하며 귀 기울이고 있다.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는 탐사정신으로 유한의 역사를 써 내려갈 YUHAN NOW의 활약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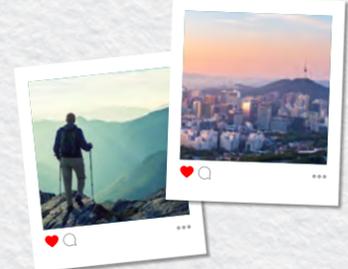
등산 동아리 '산악부'

박인호 회장 (정보통신학과 19학번)

꼭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운동화와 물만 있다면 어느 산이든 갈 수 있어요." 산악부 회장인 박인호 학생은 여기에 휴지, 쓰레기 봉투, 그리고 자판기를 이용할 천 원짜리 지폐 2, 3장이면 등산 준비물로 금상첨화라고 말한다. 산악부도 활동도 비슷하다. 자율과 자유로움을 중시하는 만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이 거의 없다. "등산의 매력은 정상에 올라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라 생각해요. 확 트인 풍경에 산에 올라오는 동안 쌓였던 피로가 절로 풀어지죠. 박인호 학생이 말하는 등산의 또 다른 매력은 계절의 흐름을 자세히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심에 있을 때는 가로등이 켜지고 꺼지는 시간이나 사람들의 옷차림에 따라 계절의 변화를 알아채는데, 산은 계절마다 풍경이 바뀌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가 옷듯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풍경을 기대하며 등산을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다고. 동아리 회원들과 단체 산행을 제대로 못한 점도 매우 아쉽다며 2021년에는 부원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인다. 부담 없는 동아리 활동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산악부 동아리방을 두드릴 것을 추천한다. 초보 등산러를 위해 '무리해서 정상까지 가는 것보다 체력의 60%만 쓰고 안전하게 하산하기'를 조언하는 동아리라면 믿음만하지 않은가?

여유롭게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산행을 원한다면 산악부로 오세요



부산행 KTX에
다시 오를
그날을
기다리며

여행 동아리 '아리아리'
신예리 회장 (인공지능융합학과 19학번)

**길이 없다면
만들어 나아가라**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리프레시하기, 새로운 도전이나 시작을 앞두고 마음 다잡기,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 쌓기 등등. 유한대 여행 동아리 '아리아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는 배움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공부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부 혹은 취업 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학우들에게 작은 위로와 안락함을 제공하는 동아리라는 울타리를 강력 추천합니다!" 아리아리 회장인 신예리 학생에 따르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교를 보다 재미있고 활동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학교 수업으로 지식을 얻는다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대인관계 등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아리아리는 여행을 통해 앞서 말한 목적을 이루기에 더 없이 적합한 동아리라는 설명이다. 아리아리는 전신인 '역사여행'으로 시작해 우리나라 각 지역의 유적지를 탐방하는 학술 동아리로 활동하다가 지난 2019년부터 이름을 바꾸고 활동 영역을 넓혔다. 여행지를 유적지로 한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국 각지의 관광명소를 여행하고 학우들에게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다. "재작년 여름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했던 부산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해동용궁사와 파도, 새벽의 바다 일출, 광안리 해수욕장 물놀이 등 그때의 온도와 습도 하나하나가 선명해요.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해 너무 아쉬웠어요. 올해도 실질적으로 여행을 갈 수는 없겠지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여행지 소개 혹은 여행 정보 및 관광 정보들을 부원들과 나누며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생활을 재미있게 보낼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하실래요?"



봉사 동아리 '버들피리'
김민정 회장 (보건의료행정학과 19학번)

**뿌듯함 Max!
나눔 Flex!**

2008년 보건의료행정학과 학과 동아리로 처음 시작된 '버들피리'는 자타 공인 유한대 대표 공식 봉사 동아리다. 동아리 이름인 버들피리는 버드나무 씨앗이 바람을 따라 온 세상에 퍼져 나가는 모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며 유한대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의 나눔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버들피리가 펼치는 활동은 농촌 봉사, 어린이집 교육 봉사, 장애인 보조 중사, 교내 클린 봉사가 있다. 가장 참여율이 높은 봉사활동은 하는 농촌 봉사다. 매년 5월 농번기가 되면 일손이 모자란 농촌을 방문해 부원들이 1박 2일간 열심히 농사일을 거든다. 허리 한 번 제대로 펴 수 없을 정도로 고되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 일을 끝내고 난 후 느껴지는 뿌듯함이 그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 뿌듯함에 매료되어 재작년 충남 청양군 대치면으로 갔던 농촌 봉사에는 무려 35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봉사 동아리라고 특별한 가입 조건이 있는 건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누구든 환영이라고 버들피리 회장인 김민정 학생은 말한다. "처음 성인이 된 친구들, 복학하고 다시 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하루가 고민이신 분들까지 모두 버들피리에 들어와 함께 봉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한 두 번씩 공강 날이나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는 시간을 이용해 교내 클린 봉사를 하다 보면 잡념도 사라지고 친구들과 빨리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해 여름,
찬란하게 빛나던
우리들의 순간



끊임없는
고민으로

비대면의
한계를 넘다

2020년 강의평가 우수교원 인터뷰
인테리어디자인전공 오정아 교수
자유전공학과 장진주 교수

코로나19는 강의 풍경을 바꿨다. 강의실은 온라인으로 옮겨졌고 교수와 학생들은 각자의 모니터로 대화하는 비대면 수업이 일상이 됐다. 소통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비대면의 한계를 넘어 강의 품질을 제고한 두 교수를 만났다.

* 우리 유한대학교는 매년 교수업적평가를 통해 우수강의교수를 선정합니다.



대면, 비대면의 장점을 살린 수업

작년 유한대학교에 부임한 오정아 교수는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서 도면을 작성하는데 필수 프로그램인 CAD 관련 교과목과 상업공간디자인 등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실습 교과목의 경우 상호 간 소통이 중요하데, 얼굴도 제대로 모르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어요.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메신저 어플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수업내용 중 궁금했던 점을 메신저 어플로 질문하면 1:1로 답변해 주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런 오정아 교수의 노력이 학생들에게 전달됐는지 2020년 2학기 최우수상이라는 좋은 성과로 돌아왔다. 학생들과의 소통을 비롯해 학습내용 수준, 학습내용 범위 등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학기에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2학기부터 대면, 비대면 수업을 병행했는데 각 수업 방식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영상 강의나 FL 교수학습법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수업 영상은 흥미롭게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품질의 영상을 위해 러닝 타임, 활용 매체 등을 고민하고 고성능 마이크도 장만했습니다.”

자유전공학과
장진주 교수



학생 수준에 맞는 1:1 지도

오정아 교수는 좋은 강의를 위해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지만 CAD 같은 전문 프로그램은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진도를 설정하고 하나의 예제를 보기, 따라하기, 복습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로부터 ‘쉽고 재미있다’, ‘프로그램 수업 중 가장 이해가 잘 된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의 수준이 전부 다른 점도 충분히 고려한다. 수업을 따라오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예제 실습 시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수업 외에는 연구실에서 별도 지도를 하고 있다. 수업을 잘 따라오는 학생들은 수업 예제 외의 보충예제를 별도로 제공해 실력을 향상시켜 주고 있다.

“처음이라 어렵고 서투른 게 당연합니다. 각자 주어진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협업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사회를 이룹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여정에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실시간 수업으로 학생 참여를 이끌다

장진주 교수는 다년간의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경력과 전국 대학교 및 기업 특강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 프레젠테이션과 발표 기술’, ‘감성 인문학’ 등의 교양과목을 강의하며 학생들로부터 2020학년 1학기 최우수 강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교양과목의 특성상 여러 학과에서 많은 인원이 모인 어색한데다 비대면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수업을 해야 하니 걱정이 많았어요. 고민 끝에 찾아낸 묘안은 실시간 수업이었어요. 일주일째 4일, 모든 과목을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했는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만큼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바로 일어난 편한 차림의 학생도 수업 참여도만큼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장진주 교수는 마치 라이브방송에 참여하듯이 채팅으로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며 온라인에서 훨씬 적극적인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기존 대면 수업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제대로 체험했다. 이런 특성에 맞춰 이모티콘이나 댓글, 스티커 등 SNS처럼 감성적인 인터랙션이 가능한 수업시스템을 활용해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게 표현하고 우수과제 등 유익한 콘텐츠를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유했다.

인테리어디자인전공
오정아 교수



비대면 시대, 소통을 고민하다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 ‘학생과 소통하고 존중받는 느낌의 수업이었다’, ‘실시간 수업을 해주셨는데, 비대면이라도 소통하기 노력하기 위해 좋았다’라는 평을 해주셔서 기뻐했습니다. 변화된 수업환경에서 소통과 배려, 교수법을 계속 고민하게 결실을 본 것 같습니다.”

장진주 교수는 학생들이 보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자신의 삶에 투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 중이다.

“자신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의와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데,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며 상대적으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대면, 비대면 모두 만족도 높은 수업을 만드는 것이 큰 숙제입니다.”

장진주 교수는 소통이 더욱 중요해진 비대면의 시기에 거칠고 서투르더라도 자신의 언어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풍토가 자연스럽게 생기도록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수업시간을 꽉 채울 예정이다. 모든 학생이 대면수업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날이어서 오길 바라며 말이다.

GBM

Measuring The Environment
www.gbm



유한대학교
총동문회장을
만나다

“나를 키운 8할은 유일한 정신”

방기석 총동문회장 (전기과 83학번)

3월 초 날씨가 유독 그렇다. 아침 저녁으로 추웠다 따뜻했다 번덕이 심해 적응이 어렵다. 그러다 따뜻한 기운이 조금씩 더해지면서 완연한 봄이 된다. 긴 겨울을 지나 만물이 깨어나는 경칩. 미디어홍보부 이호재 학생과 조혜인 학생이 방기석 총동문회장을 찾았다.



기상산업 분야의 선구자가 되기까지

조혜인 학생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방기석 대표 유한대학교 후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과 83학번 방기석입니다. 현재 유한대 총동문회장이며, GBM Inc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조혜인 학생** GBM Inc는 어떤 회사이며, 그간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방기석 대표 GBM Inc는 기상관측 장비 및 시스템, 대기환경과 날씨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로 1993년 공보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로 출발해 30년 가까이 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 끝에 기압, 풍향, 습도, 강우감지 등 거의 모든 기상 분야에서 장비의 국산화를 이뤘으며 인공강우 장비도 개발했습니다.

이호재 학생 업계에서 위상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의 위상을 쌓기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방기석 대표 초창기에는 주로 해외 장비를 수입하였는데, IMF가 터지면서 부품이나 장비의 국산화가 강하게 대두됐어요. 산업자원부, 대학 연구진들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온습도 계측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고 이를 시작으로 기상 계측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독자기술력을 가지게 됐고 현재 국내 주요 산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로호 우주센터를 비롯해 국립기상연구소와 각 지방기상청, 삼성/하이닉스 반도체 등에 우리 회사 제품과 시스템을 납품하며 국산화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멈추지 않고 기상서비스 분야와 스마트시티 환경 분야에도 진출했습니다.

조혜인 학생 굴지의 기술력으로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완벽한 날씨 조정에 성공하셨습니다. 당시 기분이 어떠셨나요?

방기석 대표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는 국가 행사라서 한국 기술의 저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컸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 적절한 강설량을 위해 국립기상연구소와 대관령에서 인공강우 사전 실험을 많이 했어요. 인공강우란 구름에 드라이아이스 같은 응결제를 뿌려 수분을 모아 비를 내리는 기술로 지난 2008 베이징올림픽 때 중국이 인공강우를 이용해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걷어냈죠. 평창동계올림픽 때는 기상조건이 맞아서 인공강우까지 사용하지 않고 다른 관측 장비들로 무사히 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람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인공강우를 이용해 가뭄과 물 부족 현상, 그리고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꾸준히 모색 중입니다.

유일한 박사님의 정신 이어가려 노력

이호재 학생 전기공학자이자 사업가로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방기석 대표 시, 빅데이터 같은 기술의 근본은 결국 사람이예요. 슈퍼컴퓨터가 있으면 뭐 합니까, 제대로 된 인풋(in put)이 있어야 정확한 아웃풋(out put)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실측 테스트를 통해 얻은 값을 슈퍼컴퓨터에 입력해야만 보다 정확한 기상예측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짜깁기는 잘하는데 응용력이 없어요.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기상 변수에 대한 소스를 많이 잡아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학교에서 실습을 할 때 자주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응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해요. 교수님도 찾아가서 계속 질문하고 혼자서 이것저것 해보세요.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에 대한 브랜딩을 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술은 물론이고 개인의 신용, 창의적인 아이디어, 끊임없는 도전정신에 끈기가 더해져야 위기에도 주저하지 않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20년, 30년 끄덕없는 안정적인 기업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혜인 학생 어떤 기업가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방기석 대표 늦가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감나무의 감을 다 따지 말라고 하세요. 까치가 먹을 거는 남겨둬야 한다는 이야기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베풀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생태계 질서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긴 겨울을 잘 나고 충분한 마음으로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장을 맡았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선구자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최대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의 영향이죠. 그분을 따라서 미력하나마 건강한 기업문화 조성 등 사회환원 분야에서 혼적을 남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재 학생 마지막으로 유한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기석 대표 우리 유한대학교 후배들도 유일한 박사님과 유한재단의 청렴함과 이념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유일한 박사님 못지않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말이죠. 재작년 졸업식에 대통령이 참석하고 나서 주변의 많은 선후배분이 유한인이라는 자부심이 커졌다고 말씀해주세요. 우리 대학교가 명문대로 거듭하는 역사적인 흐름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정신으로 무장한 진정한 스타”



유한대학교 졸업생 ‘최초 장군’을 만나다

유한이라는 배움의 전장에서

치열하게 꿈을 실현하세요

김창수 동문 (전기과 84학번)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바로 하라.” 김창수 동문은 언제나 그랬다. 주저 없이 항상 적극적인 태도로 숭선수범하고 모든 일에 열정을 쏟았다. 35년 군 생활을 하며 장군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새로운 삶의 출발선에 선 지금도 마찬가지다.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나아간다.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다

유한나우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창수 동문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과 84학번 김창수입니다. 육군 제1기갑여단장, 제5군단 부군단장을 역임하고 지난 1월 31일 군을 전역했습니다. 5월부터 포천시청 민군정책기획관과 포항공대 전자공학부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한나우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정진하며 장군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김창수 동문 어릴 적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부모님께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군인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고향은 원래 전남 함평이예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부모님께서는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셨고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부모님 몰래 신문을 배달하고 군고구마를 팔면서 용돈을 마련했어요. 새벽에 많은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쌓인 경험과 가치관이 저를 장교로 장군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유한나우 유한대학교 재학 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또 유한대학교에서의 배움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됐나요?

김창수 동문 이런 말 하기 부끄러운데, 사실 전 학과 공부는 뒷진인 학생이었어요. 육군3사관학교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 거기에만 전념했거든요. 그래도 전기과에 재학하면서 배운 옥내외 배선 작업이 군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특히 야전에서 훈련할 때 많이 활용했습니다. 나아가 육군3사관학교 전자공학과에 편입 후 졸업 후 방공포병 장교 시절 레이더 부대에서 근무할 때 전자회로를 자유자재로 볼 수 있었던 게 군 생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덕분에 지금 포항공대 전자공학부 교수가 될 수 있었어요.

유한나우 아내인 김희숙 여사님도 우리 학교 식품영양학과 84학번 동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두 분의 인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김창수 동문 유한대학교 재학 시절 ‘이즘’이라는 스포츠 미팅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 저는 체육부장이었고, 아내는 여성체육부장이었는데 운동도 잘하고 꾸준히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었죠.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고 그때 아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격려를 해준 덕분에 유한대학교 졸업 후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8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라

유한나우 직업으로서 군인은 어떤 매력이 있나요?

김창수 동문 최근 군인이 직업으로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꽤 안정적인 직업이죠. 아직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군 간부도 생각해 보길 추천합니다. 법정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인권 존중과 복지 등 직장으로서의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열정만 있으면 군에서도 충분히 꿈을 실현하면서 훌륭한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군에서 학부, 석사, 박사과정을 전부 공부했습니다. 장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분은 육군3사관학교에 도전하고, 부사관이 되고 싶은 분은 부사관학교에 도전해보세요.

유한나우 지난 2월 학교에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셨나요?

김창수 동문 2년 전 대통령께서 졸업식에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몽클했었습니다. 기대감을 안고 학교를 방문했을 때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한 모습에 감개무량했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전기과를 포함해 10개 학과에 1,5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무려 6개 학부에 학과도 34개로 늘었다고요. 학생 수도 2천 명이 훨씬 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면을 빌어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님의 ‘정직, 성실, 나눔’이라는 유지를 잘 받들어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를 발전시키고 있는 김현중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유한나우 학생들이 취업과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까. 한 마디 해주신다면?

김창수 동문 명확한 꿈을 가지고 그에 따라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제가 OO대학교사법행정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대를 졸업한 학생 중 손에 꼽는 몇 명만 관련 기업으로 취업을 하고 대부분은 다시 공부를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는 걸 봤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명확한 꿈이나 목표가 없었던 결과겠지요. 대학시절은 사회로 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머나먼 인생의 시작을 뜻하지요. 그래서 명확한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고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여유도 가지며 친구들과 학창 시절을 즐기세요. 그리고 시간을 모아 여행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을 미지의 세계로 안내하면서 창조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겁니다. 후배 여러분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 꿈을 선정하고, 유한대학교를 꿈을 이루기 위한 전장으로 생각하며 치열하고 정열적인 삶을 살아가세요.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한 구범서 동문을 만나다

자신과 학교를 믿고 세무사에 도전하세요

구범서 동문 (경영학과 경영정보전공 15학번)

구범서 동문은 세무사 자격시험을 마라톤에 비유한다. 적절히 힘을 안배해 쉬지 않고 꾸준히 달려야만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한 장거리 레이스 끝에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한 구범서 동문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한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의 비결

지난 5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응시자가 무려 1만 1,149명을 기록하며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최다 인원 응시기록을 경신했다. 구범서 동문이 응시한 작년에는 1차 시험에 9,506명이 응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응시인원이 연이어 갱신되는 등 세무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그만큼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조사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0.9%씩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공정하고 투명한 세금 운용과 납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세무사 수요 역시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무사 시험은 1차, 2차 시험으로 나뉘는데 평균 합격률이 각각 약 25~30%, 약 10%로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에 속한다.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경영, 회계, 행정, 법 등과 관련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차 시험의 경우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재정학개론과 선택법(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 1)해 총 4개 과목을 객관식으로 치르는데, 모든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목별 난이도와 범위를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했습니다. 2차 시험은 세법학 1·2부, 회계학 1·2부를 치르는데 논술형인 세법학의 경우 법령과 사례, 판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주력했어요. 그리고 주관식 계산문재인 회계학의 경우 분개를 이해하고 다

양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출발선에 서다

구범서 동문은 유한대학교 입학 전부터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1학년 때 학과 수업을 듣고 시험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회계원리 수업을 처음 듣고 시험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했습니다. 흥미도 생기고 적성에 잘 맞다고 느꼈거든요. 제 진로를 결정하는데 학교 수업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학교생활과 시험공부를 병행하느라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교수님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이 스스로를 다잡는데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 경영학과 경영정보전공을 졸업한 구범서 동문은 현재 다른 대학에 편입해 학업을 이어나가며 오는 하반기에 진행될 세무연수원 교육을 기다리고 있다. 도전의 끝에 새로운 시작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YUHAN NOW」 인터뷰를 통해 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구범서 동문은 다음의 조언을 전했다. "저는 부족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운이 따라주어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편입 후 조세법과 다른 법학을 공부하며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목표한 공부량을 꾸준히 채워나간다면 실력이 향상되고, 본인의 노력에 후회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

회계원리 수업을 처음 듣고 시험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했습니다. 흥미도 생기고 적성에 잘 맞다고 느꼈거든요. 제 진로를 결정하는데 학교 수업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2020년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학교생활과 시험공부를 병행하느라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교수님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이 스스로를 다잡는데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



‘새로움’을 향한 도전과 설렘

유한나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금희 반갑습니다. 이금희입니다. 우선 「YUHAN NOW」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나운서로 방송 일을 시작해 30년 넘게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KBS 쿨FM) 라디오 DJ와 <한국기행>(EBS) 등 다큐멘터리 내레이터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으며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가을, 책과 사람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초보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유한나우 지난 5월부터 예능에도 도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금희 박명수 씨, 이말년 작가와 함께 카카오TV의 <거침마당>라는 예능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소감은 ‘새롭다’입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TV나 라디오 프로그램은 작가님들의 손을 거친 가공된 상태의 사연들을 다뤘는데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시민 관객들(주로 20대)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날 것’의 묘미를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들 말을 너무 재미있게 하시고 표정으로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매우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소우주에 귀 기울이기

유한나우 꾸준히 같은 일을 해오시는 비결이나 에너지는 무엇인가요?

이금희 세상과 사람에 호기심이 많은 저에게는 딱 좋은 직업입니다. 지금 하는 라디오 DJ 일도 너무나 좋아서 ‘이건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유한나우 세상과 사람에 호기심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요즘 소통의 부재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데, 진정한 소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금희 관심과 경청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통을 원하죠. 저 사람도 나와 같다, 다르지 않다는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겐 누구나 호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BTS의 <소우주> 가사처럼 한 사람에 하나씩 가진 소우주들에 하나씩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 시대 청춘들을 향한 응원

유한나우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이금희 요즘 20대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치열한 전투의 시간이 아닐까 해요. 그런 전장을 만든 어른 중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부디 이 시기를 잘 견뎌주시고 버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을 다음 세대에 열어주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는 말도 있지요. 청소, 방 정리,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 무엇이든 좋으니 몸을 써서 해야만 하는 걸 찾아보세요. 백신 접종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터널의 끝이 보이니 조금만 더 가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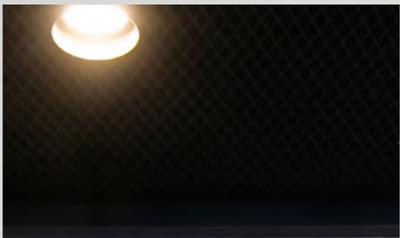
유한나우 마지막으로 「YUHAN NOW」 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금희 역시 ‘새롭다’, 세 글자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한대학교에서 새롭게 만드는 형태의 소통 채널이라고 들었습니다. 오프라인 잡지와 온라인 이복으로 더 많은 분에게 가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접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YUHAN의 NOW, 오늘이자 내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유한의 주인공으로 현재를 잘 살아 미래를 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YUHAN NOW」 창간을 축하합니다”

저마다의 소우주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

방송인
이
금
희



<인간극장> 내레이터이자 <아침마당> 진행자로 따뜻한 목소리를 통해 사람 냄새 진한 사연을 전해주던 방송인 이금희가 개그맨 박명수, 웹툰 작가 이말년과 함께 새로운 플랫폼 예능의 진행자로 돌아왔다. 대중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가공되지 않은 날 것’의 재미에 푹 빠졌다는 그녀를 「YUHAN NOW」가 만났다.





정답이 모순을 생각한 다

지닌 순을 한 다

유한인에게 전하는

홍기삼 유한학원 이사장의 메시지

약력

- 일본 쓰쿠바대학 문학박사
- 《현대문학》 지를 통해 문화평론가로 등단
- 저서: 『상황문학론』, 『문학사의 기술과 이해』, 『북한의 문예이론』, 『홍명희』, 『문학사와 문학비평』, 『민족어와 한국문학』, 『재일 한국인 문학』, 『한국의 대표 소설론』, 『불교 문학의 이해』 등
- 수상경력: 현 대문학상, 편운문학상, 서울시문학상, 은관문화훈장
- 한국문학평론가협회장



대학에서의 학문연구란 무수한 상대지식에
 눈뜨는 기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교사의 가르침이나 교과서 내용, 참고서의 설명 등은
 전적으로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의 하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절대로 틀린 답과
 절대로 합당한 정답으로 나누어지며
 정답은 언제나 하나여야 한다.



젊음은 과분하게 찬미되는 봄과 비슷하다. 그러나 봄처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생을 통해 그것은 단 한 시기 동안만 허용된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자기가 만약 신이었다면 젊음을 인생의 맨 끝 부분에 배치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인간은 젊음을 일시적으로 소유한 뒤 나머지 시간은 그것을 추억하는 것이다”라고 탄식한 바도 있다.

이제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그토록 찬탄되는 젊은 시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문턱에 들어섰다. 게다가 지옥에 비유되는 입시의 고통스럽고 너절한 과정도 모두 벗어났다. 그 타율(他律)의 긴 과정이 전적으로 무익한 것이었다고 간단히 치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아온 것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법에, 생각해야 할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은 바로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당사자들이다.

도대체 인간의 자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타인의 결정에 따라 내가 움직이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먼저 의미한다. 서클활동, 부전공, 수면시간, 독서행위, 교우 등 등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전적으로 대학생 자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더 이상 부모나 스승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면서 부모나 스승은 조언자의 입장으로 물러선다. 이때 본인에 의해 무엇이든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은 선택의 권리아말로 자유를 의미한다는 뜻이 된다. 이것을 사르트르의 명제로 바꾼다면 “자유는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선택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대체로 타인의 몫이 된다. 대학의 학과 선택, 취업의 결정, 중매결혼 등의 경우에서 어느 정도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 된다. 따라서 자유는 선택이며,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므로 다시 사르트르의 명제로 설명한다면 “자유는 책임이다”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요컨대 대학생활의 자유는 선택에 의해 구현되고 그 선택의 책임은 본인의 몫이 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대학생활은 자유와 선택과 책임에 대한 훈련의 과정이며 그것에 대한 구체적 실천과 인식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 이 자유라는 것이 대학 이전과 대학생활을 어떻게 변화하게 하는가.

한마디로 고등학교까지는 절대지식을 교육했다면 대학에서의 학문연구란 무수한 상대지식에 눈뜨는 기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교사의 가르침이나 교과서 내용, 참고서의 설명 등은 전적으로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의 하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절대로 틀린 답과 절대로 합당한 정답으로 나누어지며 정답은 언제나 하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 상태의 입시제도는 붕괴해 버리고 만다. 맞지 않으면 틀린다는 이 이치론(二值論)적 절대주의 교육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종결된다.

대학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가르치고 배운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과정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대학은 이치론적 절대주의 대신에 무수한 지적 가능성

의 세계, 수없이 많은 정답과 정답이 지닌 모순에 대해 생각하는 곳이다. 대학은 지적 절대주의 대신 지적 상대주의에 눈뜨는 곳이며 그런 점에서 교수는 가르치는 사람이기보다 학생과 더불어 연구하는 사람, 우주처럼 넓고 큰 지식의 무한성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다.

대학은 또 주체적 자아를 형성하는 곳이다. 역사와 사회에 대해 개인의 희망과 이상에 대해 정신의 구걸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립하고 독립하며, 비판의 정신과 용기로 자신의 내적 욕구를 깊이 통찰하고 관조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젊은이의 꿈과 동경, 낭만의 시대를 경험하는 것이라. 그것이 비록 허황하고 비현실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젊음을 황폐하게 하거나 삭막한 것으로 만드는 것에 비한다면 얼마나 값진 인생의 투자일 것인가.

이러한 낭만적 체험과 사색이야말로 자신의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낡고 진부한 관습을 파괴하는 방법이며 기성세대가 타성적으로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고 저 견고한 세계적 질서를 부수고 젊은이가 새로 태어나는 창조적 재생의 방법이기도 하다.

창조를 위한 파괴의 시대, 최종적 긍정을 위한 끊임 없는 부정과 비판의 시대, 그것이 곧 자기확립을 향한 대학시대의 빛나는 모습이 될 것이다.

글 홍기삼 유한학원 이사장, 문학평론가

자신만의계절을 기다리며
생각의 씨앗을 기르세요

테크노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
문철웅 교수

철학자 데카르트는 말했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고.
여기 제자들을 위해 ‘좋은 책’을 기꺼이
추천하겠다는 스승들이 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산업디자인전공 문철웅 교수로,
추천하는 책은 이어령 교수의
<80초 생각나누기>다.



책사부일체



가볍게 읽는, 그러나 묵직하게 와닿는 인생의 통찰
<80초 생각나누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 이어령 교수가 2011년부터 KBS를 통해 방영한 영상 메시지를 엮은 책이다. <지우개 달린 연필>, <길을 묻다>, <느껴야 움직인다>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기장, 청진기, 콩 세 알 등 쉽게 흘러버릴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속에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번뜩이는 메시지를 전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익숙한 요즘 세대를 위해 그림을 위주로 시처럼 단락을 끊어 쓴 문장들을 더해 에세이 식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에게 어떤 책을 추천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너무 두껍고 어려운 책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보기 쉬운 책을 고르자 생각했죠. 대신 메시지는 묵직해야 했죠. 그 조건에 적격이었습니다. 삶을 통찰하는 생각의 씨앗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75편의 에세이 중에서 문철웅 교수가 추천하는 내용은 <지우개 달린 연필> 중 ‘등이 되려면’이다.

만개(滿開)하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입학하면 오리엔테이션에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8가지 쌍기역(ㅁ)을 기억해 성공해라’입니다. ‘꿈, 꾀, 강, 끼, 꿀, 끈, 곧, 끝’으로 각각 소망, 지혜, 지구력, 재능, 정도, 인맥, 전문성, 마무리로 연결됩니다. <80초 생각나누기>는 학생들이 8가지 쌍기역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홍익대와 경희대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현업에서 산업디자이너로 활동하던 문철웅 교수가 유한대학교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1990년으로 이후 30년 넘게 강단에 서고 있다. 30년간 자신을 거쳐 간 수많은 청춘을 바라보며 문철웅 교수는 부러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낀다. “인생에 관해 우리는 지독히 근시안적입니다. 바로 코앞밖에 보지 못하죠. 그래서 늦가을 국화가 아닌 초봄의 매화가 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단지 일찍 피었다고 가장 아름다운 꽃은 아닙니다. 동백은 동백대로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저마다 피는 계절이 따로 있습니다. 하물며 꽃들도 만개의 시기를 알고 때를 기다리는데, 초봄에 피어나지 못해 안달인 학생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10대들은 하루라도 빨리 되기를 열망하고, 기성세대들은 한 번쯤 돌아가고 싶어 하는 청춘. 그러나 대한민국 청춘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않다. 부단히 스펙을 쌓고 취업 관문을 두드리며 사회에 적응하려 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 알 수 없는 불안에 청춘의 오늘은 여전히 버거워요. 자신을 성찰할 기회도, 세상을 탐험할 기회도 뺏긴 현실때문의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지 못하는 청춘들을 토닥이며 위로와 조언을 건네주고 싶습니다. 늘 학생들과 소통하고 깨우침을 주는 멘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ESIGN YOUR DREAMS BIGGER

재학생 인터뷰

유난히 길고 무더운 여름을 누구보다 치열하고 뜻 깊게 보내는 두 청춘이 있다. 바로 하게방학을 이용해 현장실습을 경험하고 있는 시각디자인학과 20학번 김은진, 황가엘 학생이 그 주인공이다. 졸업 전 살짝 맛본 사회경험이지만 자신의 꿈을 더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두 학생은 입을 모아 말한다.

시각디자인학과 20학번
김은진·황가엘 학생



유한나우 반갑습니다. 자기소개와 근황을 알려주세요.
김은진, 황가엘 안녕하세요. 시각디자인학과 20학번 김은진, 황가엘입니다. 현재 1학기 종강 후 우리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은 1세대 대표 편집디자인회사인 대통기획에서 하게 현장실습 중입니다. 오늘로 벌써 3주차에 접어들었어요.



시각디자인학과 20학번
황가엘

서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심화학습을 하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학교 과제와 달리 회사에서는 제가 만든 결과물에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실제로 겪으며 학교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다보니 실무경험이 강화되는 것 같이 실습을 하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유한나우 현장실습을 해보니 학교와 어떻게 다른가요? 현장실습을 통해 무엇을 얻고 있나요?
김은진 디자인 회사의 업무가 실제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험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라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품고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를 해보니 학교가 여러 교과목을 한꺼번에 배우며 자신에게 맞는 적성을 찾는다면, 회사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역량을 기른다는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패키지, 일러스트, UX/UI, 그래픽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 중에서도 편집디자인이 기본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현장학습 기간 동안 이곳에서 디자인의 기본기를 잘 다져서 역량을 기르고 싶습니다.
황가엘 현장실습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과 많은 점이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학교에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운다고 머리로는 알았지만 체감은 못했는데, 현장실습을 해보니 정말 학교에

유한나우 유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를 선택한 이유와 좋았던 점을 말씀해주세요.
김은진 광고디자이너를 목표로 짧은 시간 안에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대학을 알아본 중 학과의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취업처를 바로 연결해 준다는 점이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광고디자인기초 과목을 들으며 스튜디오에서 광고 사진도 촬영하고 디자인을 하는 등 광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험하면서 제 꿈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황가엘 고등학생 때 일찌감치 시각디자인학과 진로를 결정했어요. 학교를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주변 어른들께 인지도도 높고 장학금 등 지원 혜택이 많은 유한대학교를 선택했어요. 1학년 때 디지털 크리에이티브라는

과목을 수강하며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영상 제작을 배웠는데 포토샵만 겨우 뎀 신입생이었던 저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그램이었지만 그만큼 재미있고 성취도도 높았습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줄여가며 과제를 제출했는데 교수님께서 열심히 노력한 게 결과물로 보인다고 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유한나우 앞으로의 포부와 'YUHAN NOW'와 인터뷰 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김은진 디자인은 배워도 끝이 없이 없다고 느낍니다. 광고디자이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할 텐데 현재 현장실습을 하면서 실무경험을 배워가는 것부터 차근차근 채워가려고 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오랜만에 저의 꿈을 깊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들 코로나19에 더위까지 심해져서 많이 지치셨을 텐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황가엘 하게 현장실습을 무사히 끝내고, 편집디자인회사에서 일하면서 편집디자인을 더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흥미를 가졌었던 타이포그래피&모션그래픽 영상도 더 배워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YUHAN NOW' 창간호에 실리게 되어 너무 영광이며,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시각디자인학과 20학번
김은진

Dept. of Yuhan Biotechnology

- #바이오테크놀로지
- #현장미러형실습
- #플래그십학과
- #첨단생명과학
- #포스트코로나



유한생명바이오학과 **코로나 시대 인류는 우리를 기다린다**

#유한생명바이오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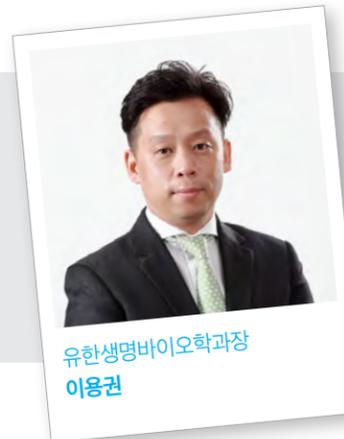
유한생명바이오의 '유한'은 우리 '유한'대학교 유한양행 그리고, 유한화학, 유한건강생활 등의 유한패밀리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바이오 및 제약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바이오의약품 및 합성의약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동물세포배양, 단백질분석 및 정제, 정량기기분석, 약품분석 분야 등의 실무교육중심의 전공교과를 배우게 되고, 의약품 품질관리 전문가, 분석전문가, 세포배양 전문가 및 단백질 의약품 생산 전문가를 길러낸다.

#제약/바이오분야 전문가로 가는 길

바이오 관련 의약품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직군으로 인구 고령화, 웰빙 라이프 수요 등으로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바이오의약품 및 합성의약품 생산을 위한 전문인력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춘 유한생명바이오학과의 전문 인력양성 교육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의약품 품질관리 전문가, 생산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고, 가족회사인 유한양행, 유한화학, 유한건강생활 뿐 아니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종근당 등의 제약 회사 및 바이오 관련 기업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유한생명바이오학과만의 자랑거리

2021년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바이오헬스분야)으로 선정됨에 따라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교육기관의 위상을 인정받았다. 현장미러형 최신 실험기자재와 실습공간을 자랑한다. 유한생명바이오학과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융합적 사고를 갖출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이 가능한 융합교육과정과 최신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현장미러형 실습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유한양행, 유한화학 등 가족기업과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습 기자재를 인수받는 등 능동적이고 민첩성이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유한생명바이오학과장 이용권

#학과장의 한마디

대학생활의 주인공은 학생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주도적인 학습을 할 때, 학창 시절이 여러분 인생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이해시키기보다 학생들이 학습하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심을 갖고 돕는 조력자, 어드바이저(adviser)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학과가 유한대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학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뷰티학과 차세대 글로벌 뷰티 리더로 향하다

#의료뷰티학과는?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최근 트렌드에 따라 단순한 뷰티가 아닌 의료, 바이오, 인공지능 등을 결합한 뷰티 산업의 과학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토털뷰티와 성형, 피부, 메디컬케어를 융합한 메디컬뷰티케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실무 경험이 많은 교수진을 배치하고 국내 주요 병원, 가족기업과 협력하여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2021년 현재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53명의 신입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미래의 뷰티미용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가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메디컬뷰티케어 전문가로 가는 길

공중보건학, 피부생리학 등 의료기초이론을 비롯해 기초피부관리, 메디컬스킨케어, 화장품학, 화장품 제조 등 의료뷰티와 화장품 분야 실무를 학습한다. 19년의 화장품 회사 경력을 지닌 김정기 교수는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창의성과 융통성을, 병원 실무경력과 에스테틱 운영 경험을 가진 손효정 교수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한다. 또 김혜주 교수의 경우 산업체 근무와 교육 경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의료뷰티학과의 자랑거리

현장미러형 실습실인 스킨케어실습실과 두피케어 실습실을 갖추고 있어 교육을 하면서 쌓은 실무경험을 토대로 현장 적응이 바로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여기에 기업체 등 현장 견학, 유연회사제도를 통한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영역별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료뷰티산업 전문가 초청 취업특강을 통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에 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은 또한 물론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동아리 활동 등 학과 특성에 맞는 비교과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의료뷰티학과장
김정기

#학과장의 한마디

우리 학과는 가족기업인 유한건강생활과 함께 메디컬뷰티케어 전문가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공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최첨단 실습 장비를 활용하고 디지털, 빅데이터 트렌드에 발맞춰 IT 뷰티콘텐츠와 고객감성학 등 다양한 융합교육과정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Dept. of Medical Beau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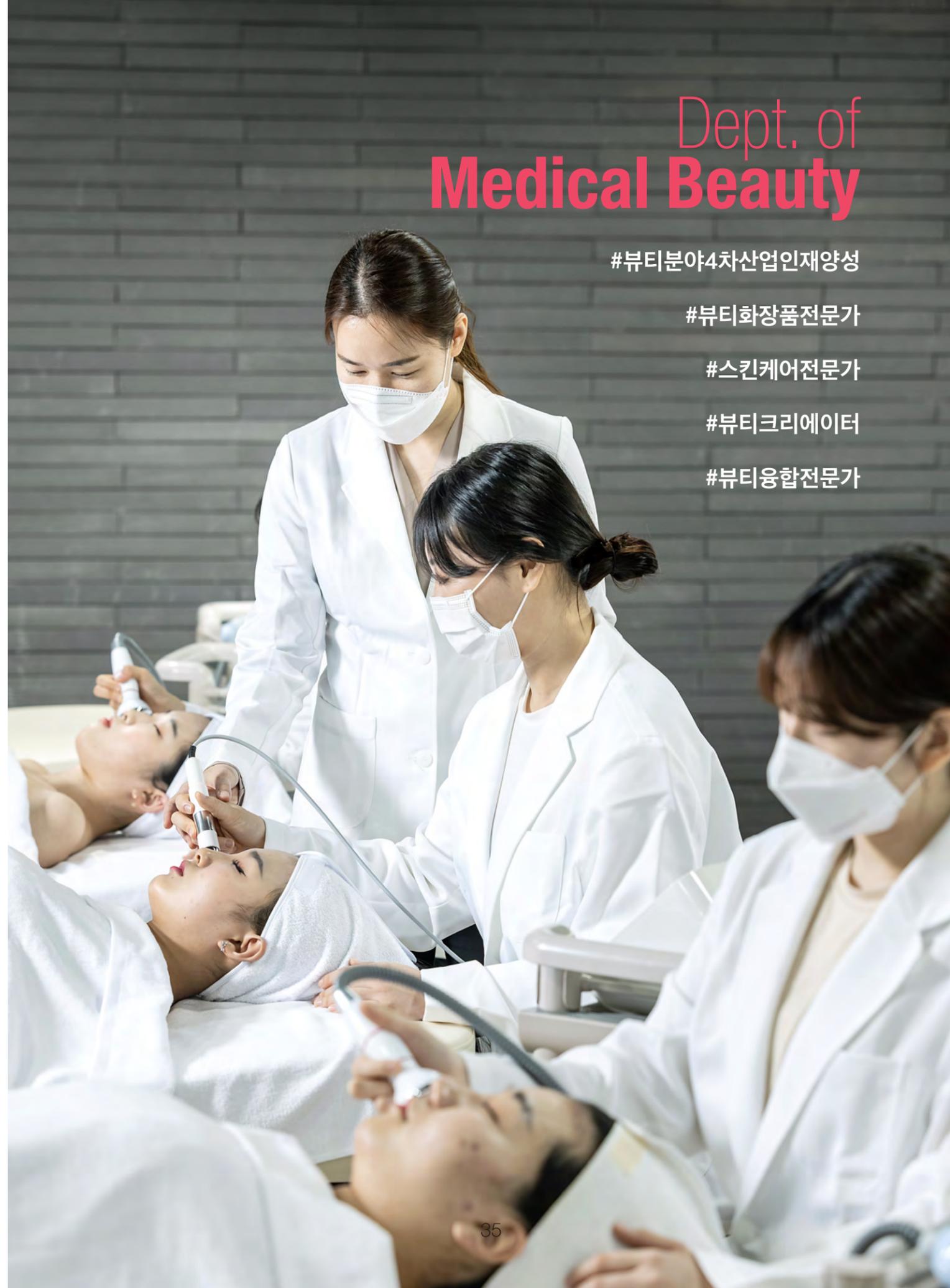
#뷰티분야4차산업인재양성

#뷰티화장품전문가

#스킨케어전문가

#뷰티크리에이터

#뷰티융합전문가



Dept.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무엇이든할수있는

#네멋대로해라

#자유전공

#너를믿어

#YOLO

NoteBook ZONE

NoteBook ZONE



When you need
- 시드니 스미스

자유전공학과 학생들의 꿈을 함께 탐색하고 설계하다

#자유전공학과는

4차 산업시대의 사회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인재를 필요로 한다. 유한대학교 자유전공학과는 중등학교 교육이 입시 위주로 진행되면서 자신의 적성을 찾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대학 입학 후 다양한 학과 수업에 참여해보고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현시대의 요구를 잘 반영한 학과다. 현재 6명의 신입생들이 지도 교수의 1:1 밀착 멘토링을 받으며 자유전공학과에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길

자유로운 학과 배정을 위해 학과(전공) 간 기초교육과정이 연계되어 있어 신입생들의 경우 3지방까지 원하는 학과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2학년이 되면 학생이 직접 설계한 전공 즉, 학생주도형 전공개발을 통한 맞춤 교육 혹은 심화교육을 받는다. 교육학·인적자원개발·평생학습 전문가 이수연 교수, 경영학·리더십 조직변화 전문가 정예지 교수, 언론학 전문가 장진주 교수가 적극적인 학생 면담과 진로상담 등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자유전공학과의 자랑거리

나만의 전공을 설계하고 진로의 탐색의 기회를 가진다. 1학년 1학기 동안 다양한 전공수업들을 탐색한 후 적성에 맞는 학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후 1학년 2학기에는 자신이 원하는 전공 학과를 선택하고 그 학과의 졸업 학위를 받게 된다. 진로 지원 및 전공 개발 특강, 기초 학업 강화 특강 및 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 간 경계를 넘어선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자유전공학과장
이수연

#학과장의 한마디

학생들의 진로 즉 삶의 걸음걸음을 가르치고 함께 걸으면서 함께 학습하는 것이 자유전공학과의 교육철학입니다. 학생들에게 함께 배우고 함께 노력하기 좋은 조력자이자 좋은 친구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잠재력을 믿고 저희에게 기대세요!

난리났네 난리났어

집콕러들을 위한 추천템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의 기세에 집콕하는 기간이 늘어나며 새로운 즐길 거리를 찾는 유한인들의 방향도 이어지고 있다. 넷플릭스 메인화면을 외출 지경에 이르렀다면 권지연 학생이 추천하는 집콕 아이템을 주목해보자.

글 권지연(미디어홍보부)

1



사진 출처: 네이버 블로그 'darker 09 겨울왕국 피코페인팅 후기' 추천

시간 순삭! 피코 페인팅

집에서 심심할 때 할 수 있는 취미생활로 피코 페인팅을 추천한다. 피코 페인팅은 캔버스에 적힌 번호에 맞는 유화물감을 칠해 그림을 완성하는 것으로 손재주가 없어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명화를 비롯해 애니메이션, 영화 포스터, 감성 일러스트 등 다양한 도안이 있으며 주문 제작으로 자신만의 도안을 만들 수도 있다. 잡다한 생각을 깨끗이 비워가면서 오랫동안 몰두할 수 있어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좋다. 장시간 하다 보면 어깨, 손 등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색을 칠해나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재밌고 완성했을 때의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활동이다. 여러 색이 모여 만들어지는 나만의 작품. 인테리어용으로든 찰떡이다.

2



사진 출처: zoom투어(www.zoomtour.com)

랜선 투어로 떠나는 세계여행

여행이 간절한 요즘, 온라인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실제 여행지로 떠날 수 있는 랜선 투어는 소소한 배경 자료뿐 아니라 다채로운 영상과 음악으로 우리를 매료한다. 투어가이드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소리를 들으며 간접적으로 여행을 체험한다는 점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카메라의 한계는 있지만 여행자가 헤매지 않도록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대부분 1만 원 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색다른 모미를 맞출 수 있다. 가이드의 상세한 설명도 더해져 추후 여행지 선정에도 도움을 준다. 여행사에 따라 오프라인 영상도 제공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랜선 투어를 통해 채워가도 좋을 것 같다.

3



사진 출처: 네이버 블로그 '레트로 게임기' 추천
오디오 패밀리를 아십니까?

응답하라 레트로 감성! 레트로 게임기

'집콕' 현상과 맞물려 인테리어 소품부터 취미 용품까지 레트로 감성이 담긴 제품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레트로 열풍에 발맞춰 레트로 게임기도 등장했다. 추억이 가득 담긴 360개의 단순한 게임들이 내장되어 있어 가볍게 즐기기에 딱이다. 남극 탐험, 서커스, 팩맨 등 게임팩을 따로 사지 않아도 되고 전원, 모니터 HDMI의 케이블만 연결하면 기계지도 쉽게 연결할 수 있다. 조작법도 쉬워서 다양한 장소와 모임 등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방구석에서 그 시대의 그래픽을 통하여 레트로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옛 향수를 불러일으켜 요즘의 게임들과는 또 다른 재미를 준다.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는 집콕러들에게 강추!

4



사진 출처: zoom투어(www.zoomtour.com)

#홈슬레저룩 #홈트 #요가 #일상편안함

홈레이닝, 요가 등 실내 운동이 일상생활에 녹아들면서 집에서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애슬레저룩이 떠오르고 있다. 애슬레저룩은 애슬레틱(athletic)과 레저(leisure)를 합친 스포츠웨어 용어로, 운동복을 일상복으로 활용해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몸매를 잡아주는 동시에 부각되지는 않아서 운동 후나 외출 시에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다. 편안함과 개성을 가장 잘 드러내어 자연스러운 데일리룩으로도 연출할 수 있다. 땀 흡수, 신축성, 보온성 등 스포츠 웨어의 다양한 기능까지 갖춰 운동 마니아는 물론 일반인까지 일상을 편안하게 물들여주는 애슬레저룩, 누구나 접하기 좋을 것 같다.

5



사진 및 레시피 출처: 네이버 블로그 '초콜렛의 하루일기' '핫케이크로 초콜렛 에어프라이어 스콘 만들기'

내 취향대로 만드는 에어프라이어 초코칩 스콘

이젠 주방 필수템으로 자리매김한 에어프라이어. 요알못(요리를 못하는 사람)들도 에어프라이어 덕분에 집에서 쉽게 각종 튀김과 구이 등 다양한 요리와 홈베이킹이 가능해졌다. 많은 에어프라이어 레시피 중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초코칩 스콘은 입안 가득 맴도는 짠맛과 단맛의 적당한 조화로 간식으로 먹기에 적합하다.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자신의 취향대로 토핑을 넣어 먹는 재미도 있다.

재료: 핫케이크 가루 200g, 계란 1개, 버터 30g, 초코칩 40g

1. 실온에 둔 버터와 계란 1개를 볼에 넣고 푼다.
2. 1에 핫케이크 가루를 넣고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짓는다.
3. 손으로 반죽을 여러 번 접으며 뭉친다.
(반죽이 질기 때문에 핫케이크 가루를 살짝 바닥에 바르고 사용하면 나중에 떼기 좋다)
4. 기호에 따라 초코칩, 아몬드 등 토핑을 넣는다.
5. 2~3cm 두께로 4개의 스콘을 만든다. (모양은 알아서)
6. 에어프라이어를 160도로 설정하고 20분간 구워주면 완성된다.
(기계마다 온도 설정이 다르니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한다)



6



20대가 평소 동영상 시청하는 채널은?

- 1위 유튜브 97.1%
- 2위 넷플릭스 43.6%
- 3위 인스타그램 42.1%

출처 | 오픈서베이 온라인 동영상 시청 트렌드 리포트 2021

20대가 즐겨보는 동영상 콘텐츠는?

- 1위 예능/코믹(46.4%)
- 2위 게임(32.9%)
- 3위 뮤직비디오/음악/무대영상(31.4%)

출처 | 오픈서베이 온라인 동영상 시청 트렌드 리포트 2021

국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순위는?

- 1위 블랙핑크 6,310만 명
 - 2위 HYBE 5,930만 명
 - 3위 방탄소년단 5,390만 명
- 2021년 5월 기준

문학의 도시, 런던으로 떠나는 서점 투어

종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노려보다 보면 문득
종이책의 냄새와 책장을 넘기는 질감, 소리가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다. 네모반듯한 공간에
네모난 책들로 꽉 채워진 서점에 들어서기만 해도
마음이 충만해지기도 한다.
조해진 학생이 안내하는 언택트 투어의
첫 번째 여행지, 바로 종이책의
낭만에 매료될 수 있는 런던 서점 투어다.

글 조해진(미디어홍보부)
사진 네이버 블로그 ONEUL(오늘)



낭만과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워드 온 더 워터'

9와 4분의 3 승강장. 해리 포터 시리즈를 본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곳이다. 영화 속 호그와트 마법학교로 가려면 이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호그와트행 급행열차를 타야 하는데, 바로 이 승강장의 배경이 된 곳이 런던의 킹스크로스역이다. 서점을 소개하는 글에 갑자기 해리 포터라니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행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킹스크로스역을 소개하기 위해 해리 포터만큼이나 이목을 집중시키는 요소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런던의 서점은 킹스크로스역 운하에 위치한 '워드 온 더 워터(Word on the Water)'라는 곳이다. 배를 개조하여 만든 서점으로 캠던 록에서 패딩턴까지 물 위를 떠다닌다. 워드 온 더 워터에서는 음악회나 독주회, 문화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까지 제공한다. 이 서점의 주인은 앞서 말했던 해리 포터에 나오는 마법사들처럼 커다란 모자를 쓰고 있다. 커다란 모자와 독특한 옷차림새 때문인지 해리 포터의 열렬한 팬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든다. 배의 외관에는 수많은 책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책 틈 사이사이로 장식해 놓은 꽃과 소품들은 물 위에 떠 있는 서점이 가진 신비로움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서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워드 온 더 워터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강아지가 아늑해 보이는 소파 위에서 손님들을 제일 먼저 맞이한다. 배 안에 걸려있는 다양한 엽서들, 서점의 외관만큼이나 가득 차 있는 책들, 보통의 서점에서는 보기 어려운 LP 판 등 다양한 소품들이 섞여 있는 이 서점에 있다 보면 한 편의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신비로움과 독특함이 넘쳐나는 워드 온 더 워터를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

Information

주소: Regent's Canal Towpath, Kings Cross, London N1C 4LW
전화번호: +447976886982 홈페이지: www.wordonthewater.co.uk
인스타그램: word_on_the_water

England London



런던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을 찾았다면 '던트 북스'

편집숍이나 예쁜 카페들이 모여 있는 런던의 메릴본 거리에 위치한 '던트 북스(Daunt Books)'는 런던의 아름다운 서점으로 꼽힌 만큼 현지인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서점이다. 던트 북스는 런던 안에만 5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큰 서점인데, 이번에 소개하는 곳이 많은 지점 사이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던트 북스의 본점이다. 이 서점을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이 근사한 곳을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휩싸일 것이다. 진한 초록색 배경 위에 하얀 글자가 인상적인 DAUNT BOOKS의 간판은 아기자기하고 우아한 분위기의 골목에 딱맞은 느낌을 한층 더해준다.
서점의 내부는 지하와 1층, 2층으로 나누어진다. 오래된 목재로 지어진 서점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서점의 첫인상에 우아함과 따뜻함이 더해져 던트 북스의 매력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게 된다. 빼거덕 소리가 나는 바닥, 차곡차곡 쌓여 있는 책들, 현대의 서점과는 다른 분위기를 띠는 아날로그 느낌의 내부는 누구라도 한 번쯤 꿈꾸어 봤을 만한 영화 속 서재를 꾸며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던트 북스의 또 다른 매력은 나라별로 책을 구분해 놓는다는 점이다.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등 나라별로 책들을 구분한 뒤 진열해 놓아서 서점을 방문한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의 책을 쉽게 찾아 읽을 수 있다. 몇 시간을 있어도 지루하지 않을 서점이지만 서점을 구경하다가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아시아 코너에서 눈을 크게 뜨고 수많은 책 사이에서 한국 소설책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여행을 떠난 다른 나라에서 한글로 쓰인 책을 발견하는 일만큼이나 짜릿하고 벅찬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서점을 떠나기 전 서점만큼이나 유명한 던트 북스의 에코백을 찾게 된다면 꼭 구매하기를 권장한다. 여행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 던트 북스의 아름다운 분위기와 느낌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다면 말이다.

Information

주소: 84 Marylebone High St, Marylebone, London W1U 4QW
전화번호: +442072242295 홈페이지: www.dauntbooks.co.uk
인스타그램: dauntbooks



농치지 마라, Yuhan TRUST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한 TRUST 교육인증 이야기 졸업생에게 듣는

누구에게나 홀로서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제 막 사회 초년생으로 홀로서기 한 고은별 학생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찬란하게 빛을 내며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Yuhan TRUST 덕분에이다.



이름 : 고은별
학과 : 산업안전보건융합학과
인재양성유형 : 안전보건관리
취업처 : GS건설
핵심직무 : 보건관리

1 본인 소개 및 담당 업무는?

안녕하세요. 18학번 산업안전보건융합학과 졸업생 고은별입니다. 저는 2020년 7월부터 GS건설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하며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소음이나 분진 등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보호구 착용 교육과 관리 업무예요. 그 외에도 보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2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저의 직무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항상 확인하며 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관리하는 등 전반적으로 작업환경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많은 근로자와 소통하는 업무가 많아서 원활한 소통 역량이 우선시되는 것 같아요. 현장의 특성상 유해인자들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부터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가 보호구 착용이거든요. 하지만 근로자들은 작업할 때 보호구 착용이 불편해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보건관리자와 근로자의 의견 대립이 일어나요. 때문에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읽고 감동시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물론 학교에서 배운 보건관리 전공역량은 매우 기본이겠죠? 아무리 말을 잘 하더라도 관련 지식이 없으면 근로자들을 설득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업기초역량과 전공역량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 본인의 강점 역량은?

저의 강점은 꼼꼼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꼼꼼하지 못한 편이었어요. 그러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양수업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특히 '성과를 높이는 조직 내 문제해결'과 '실전 기획 스킬' 직업기초역량 교양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문제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또 제 판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역량도 더 기르게 되었어요. 이런 학습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 매사에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의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게 됐어요.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기르게 되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게 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4 어떻게 GS건설에 입사하게 되었나요?

아무리 제 강점 역량이 뛰어나도 일단 회사에 들어가려면 이력서 제출과 면접이 필수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학교는 취·창업 비교과 프로그램이 참 잘 되어있어요. 먼저 저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완성 프로그램'을 통해 저만의 강점 역량을 잘 녹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었는데 전공교과 학습, 자격증 준비, 졸업논문 작성 등 전공역량 강화 활동에 대한 제 이야기를 전문가 컨설팅으로 좀 더 탄탄하고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순 없겠죠? 청춘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잖아요. 특히 진로에 대한 확신이 들지 못해서 멘붕이 올 때면 전문상담사 선생님에게 신세한탄을 하고 어떻게 준비할지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취업준비 방향과 가출했던 멘탈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면접준비는 '취업캠프'를 통해 면접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까지 있다면 믿어지시겠어요? 그건 바로 '신입사원과 직장생활 매너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제 이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으로써 준비과정에서 부담이 있었어요. 하지만 신입사원 직장생활 매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이 나를 더 돋보일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어떤 활동'으로 제가 GS건설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을 탐구하고 고민한 과정들이 지금의 '고은별'을 만든 것 같아요.

5 어떻게 다이아몬드 등급이 되었나요?

처음에 학교에 와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건드려보기 시작해 본 것인데 어느새 다이아몬드 등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은 별거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1학년 1학기에 다양한 진단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는 어떤 활동이 있나 찾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게시판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서 추구하는 TRUST형 인재가 된 것 같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6 다이아몬드 등급을 노리는 후배들에게?

학교에서 수업만 듣고 가면 솔직히 조금 아쉽잖아요. 친구들과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우는 아기 젖 준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학교에서 특강 같은 걸 듣고 나면 또 뭐하고 싶은지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적극적으로 적었어요. 핫한 아이템들을 학교에 요청하고 그래서 또 하나씩 배우는 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대학생활은 즐기는 게 중요해요. 회사에 오고 나니 그때 왜 더 열심히 못 놀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반대로 더 열심히 뭔가 배워볼 걸 하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상하지 못했던 다이아몬드 등급을 받으니까 솔직히 나 좀 열심히 학교 생활했나? 그래서 훈장 같은 것을 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등급을 노린다면 눈을 크게 뜨고 자꾸 이것저것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공강 시간이나 야간을 활용해서 이것저것 경험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딱히 갈 수 있는 곳도 없는데 학교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나 하고 궁금해하다 보면 저보다 높은 점수로 다이아몬드 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유한만의 특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TRUST 교육인증



◇ Yuhan TRUST 핵심 역량 및 인증

TRUST 교육인증은 유한인성역량, 기초학습역량, 직업기초역량, 직무수행역량, 취·창업기초역량에 대한 역량 성취도를 평가하여 유한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 TRUST 교육 인증서 등급별 기준



※ 5대 역량 모두 인증 시 인증서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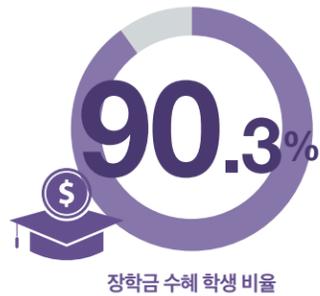
◇ 개인 맞춤형 Matrix

유한대학교는 학생 개인 맞춤형 TRUST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기별 TRUST 교육인증 현황을 '개인 맞춤형 Matrix'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핵심 역량별 인증 여부를 토대로 자신에게 부족한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강 등에 참여시킴으로써 '균형' 잡힌 TRUST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고은별 학생의 경우 입학 당시 기초학습역량과 직무수행역량에 남다른 두각을 나타냈다. 재학기간 동안에는 개인 맞춤형 Matrix를 통해 부족한 역량을 파악하고 유한인성역량, 직업기초역량, 취·창업역량 관련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균형' 잡힌 TRUST 인재로 성장한 결과 꿈에 그리던 GS 건설에 입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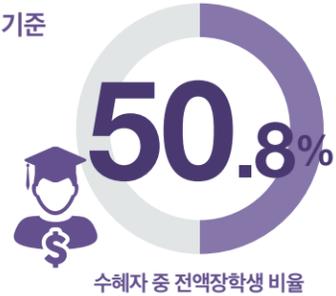


장학금, 얼마까지 받아봤니? 유한대학교 장학금 A to Z

1. 장학금 수혜 비율



2020학년도 장학금 지급 기준
(2021.02.28.)



2. 장학금 종류

교내장학금	유한학원이사장장학, 신입생 성적장학, 성적우수장학, 유한학원장학, 총장장학, 공로장학, 간부장학, 기자장학, 유한희망장학, 유한글로벌장학, 직계자녀장학, 재학생 형제장학, 유한사랑장학, 외국인장학, 유한STEP-UP장학, 보훈장학, 북한이탈주민장학, 특별장학금 등
교외장학금	유한재단장학, 유한장학재단장학, 문숙장학재단장학, 주심장학재단장학, 총동문화장학, 아산사회복지재단장학, 농어촌희망재단장학, 계림장학재단장학,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장학, 서울희망장학, 지정장학, 푸른등대장학, 경원장학재단장학 등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II유형, 전문기술인재장학, 희망사다리(고졸후학습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 보훈장학, 북한이탈주민장학 등

3. 장학금 Q&A

- Q. 교내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성적우수장학금과 유한희망장학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학생에게 지급되며, 그 외 장학금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며 모집/선발합니다.
- Q. 장학금별로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 교내외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포함 등록금 범위 내에선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생활비 보조 성격인 장학금은 예외로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 Q. 유급생의 경우, 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장학규정 제8조 2호에 의거, 전과 및 복수전공, 융합전공자에 한하여 초과학기 수강신청 대상자는 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학생처(장학) 02-2610-0332 유재라관 8107호



성공취업을 위한 단계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 준비 시작해볼까?

STEP 01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학과별 경력개발에 필요한 전공 직무관련 자격증, 비전공 자격증 강좌 개설
* 국가공인, 국가기술 자격증에 한하여 지원
(1~2학기 내 학과 운영 시 안내)

STEP 02

취업진로카드 작성

취업을 하고자 분야의 직무, 지역, 근무형태 준비정도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한눈에 파악하고 상담 연계
(1~2학기 취업멘토링 시간)

STEP 03

취·창업 관련 특강

산업체 전문가/창업자(사업자)/졸업생을 초청하여 취업 노하우 및 기업이 정신에 대한 특강 실시
(1~2학기)

취업을 본격 준비해보자!

STEP 04

취업전문상담실 운영

각 학과별 배정된 전문상담사를 통한 취업 관련 전반적인 상담 및 서류작성 스킬업
(상시)

STEP 05

취업캠프

입사지원서/면접/이미지 메이킹 등 취업활동에 요구되는 노하우 특강 및 컨설팅 지원
(1~2학기)

STEP 06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스스로 직접 작성해 보고 첨삭 및 상담 연계
(1~2학기 취업멘토링 시간)

STEP 07

포트폴리오 특강 및 경진대회

포트폴리오 작성에 대한 학과별 전문가 특강 지원 및 취업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우수 포트폴리오 시상 및 전시 진행
(2학기)

STEP 08

모의입사 경진대회

취업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완성된 개인 이력서, 면접스킬을 기반으로 모의입사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우수자 시상 및 피드백 제공
(2학기)

회사 생활을 준비해보자!

STEP 09

서비스매니저 과정

직무에 맞는 서비스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이론&실습 교육 진행 후 서비스매니저2(3급) 자격증 취득 기회 부여
(1년 중 운영 시 미리 안내)

STEP 10

직장생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너 특강/취업 마인드 고취부터 입사 후 경력개발 /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작성 등 신입사원에게 꼭 필요한 주제에 대한 특강 실시
(1~2학기)

유한의 든든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문의
산학취업처(취업) 02-2610-0430~2
유일한기념관 7401호
산학취업처(창업) 02-2610-0433
유일한기념관 7401호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너라서 좋은거야

나 자신으로 살기로 한 첫 번째 발걸음은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알고 그와 관련된 정서를 알아, 나와 타인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패턴을 명료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을 때 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벗어나고 싶고 혹은 원하지 않은 삶의 패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 자신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든 유한인들을 응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해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가요? 나를 표현하는 나만의 단어는 무엇인가요? 세상은 점점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사회 혹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나'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진지한 생각과 고민보다는 영어성적, 학점, 봉사활동 등의 스펙이나 조건을 가진 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나에 대한 뚜렷한 인식 없이 나를 표현하는 스펙들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이라도 '나'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해 보세요.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힘들어하는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춰 보세요. 나는 왜 그 사람을 힘들어하는가? 어떤 이유로 마음이 불편한가?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한 나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느끼는 내 주된 기분이 어떤지 찾아 보세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관계를 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내 기분은 어떠한지, 또는 내가 편안한 사람과 있을 때는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내 정서는 어떠한지 찾아 보세요. 신기하게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반응들과 나의 정서들은 나의 대인관계 패턴이 되어 나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유한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

개인상담

학교 및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과정입니다. 상담 전문가와 함께 1:1로 진행되며, 매주 50분간 진행됩니다.

심리검사

자신의 성격 및 심리, 진로, 적성 등에 관련된 특성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상담을 진행합니다.

집단상담

비슷한 관심과 고민을 가진 학생들이 스트레스 해소, 대인관계 향상, 자기성장, 진로탐색을 위한 자기이해 등의 주제를 가지고 10명 내외로 함께 모여 서로의 성장을 돕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상담센터 언택트 상담 앱 '유한누리'를 소개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면 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언택트 상담 앱 '유한누리'를 개발했습니다. ▲ 이용안내 ▲ 상담 및 심리검사 간편예약 시스템 ▲ 채팅상담 ▲ 문의&응답 등의 메뉴로 구성되었으며 간편예약과 push 알림 기능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채팅상담 메뉴를 통하여 공간의 제약 없이 상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개인별 문의&응답 메뉴를 이용하여 상담센터와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힐링센터(상담) 02-2610-0356 나눔관 5109호

학교 다니면서 용돈 벌 수 있는 꿀알바, 국가근로를 알아보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장학생도 재택근무가 허용된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학기당 450시간이었던 근로 한도도 520시간까지 올려 학생들이 원활할 경우 더욱 많은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국가근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Q. 국가근로장학금이란?

A.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재고를 위한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장학제도이다. 국가근로장학은 교내 근로와 교외 근로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Q. 교내 근로는 어떤 일을 하는데?

A. 교내 근로는 다시 일반 교내 근로와 봉사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 교내 근로는 교내 근로지, 즉 소속 학교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을 하는 근로활동이다. 아르바이트 장소가 도서관인지, 학과 사무실인지, 상담센터인지 등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다.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봉사활동과 비슷하다. 책을 정리하고 사서 선생님들의 잡다한 도서관 업무를 처리한다. 혹은 학교 독서실에 자리 비움표를 쓰지 않고 자기 물건을 두고 개인 좌석처럼 쓰는 학생들이 있는지 감시하고 경고하는 일도 한다. 학과 사무실 아르바이트는 정말로 잡다한 업무를 한다. 학과 관련된 업무들이라 과마다 하는 일도 다르다. 보통 조교님들의 심부름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수업 때 필요한 자료들을 직접 제작하고, 자르고, 복사하고, 제본하는 일이 많다. 이외에도 학교 홍보 영상이나 포스터 확보의 모델로 활동하는 홍보 서포터즈와 상담센터에서 잡다한 서류처리를 하는 교내 근로 아르바이트도 있다. 봉사 유형은 장애대학생의 학업/이동 등을 도와주거나,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을 도와주는 근로활동이다.

Q. 교외 근로는 어떻게 다른가?

A. 교외 근로는 일반 교외 근로와 취업연계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 교외 근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교외 근로지에서 하는 근로활동이다. 취업연계 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취업연계 중점대학이 운영하는 근로 유형과 지역 기업이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 유형이 있으며, 둘 다 전공과 관련 있는 근로기관 근무이기 때문에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

Q. 누구나 다 할 수 있을까?

A. 국가근로장학금의 지원 자격은 국내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직전 학기 CO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이다. 단,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 유형, 봉사 유형, 농·어촌(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 시에는 학자금 지원 구간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방문하면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Q. 국가근로 말고 다른 교내 알바는 없을까?

A.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교내봉사장학이 있다. 학기 중 학과 사무실이나 행정 부서에서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 교내봉사장학은 소득분위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국가근로에 떨어진 사람도 지원이 가능하다. 학기 초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련 글이 올라오면 희망 봉사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의 수가 정해져 있고 소수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일의 강도가 높지 않아 공부와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근로의 경우 달마다 근로장학생이 일한 시간에 따라 입금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반면, 교내봉사장학은 학기가 끝나고 약 2~3주 뒤에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입금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문의 : 학생처(근로장학) 02-2610-0331) 유재라관 8107호



YUHAN HOT ISSUE

유한대학교 주요 뉴스

NOW



교육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선정'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유한대학교가 지난 5월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3년간 12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추진(2021년 12개교, 총 120억 원 지원) 하는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에 바이오헬스 분야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국내외 전반에서 신산업 관련 기술 등에 특화된 인재의 발굴 및 적시 인재양성의 시급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문대학이 인근 지역 신산업 변화 분석을 토대로 대학 내 유관학과와 산업체가 연계하여 신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방법·제도 개선을 통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체계적인 교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24년까지 연간 10억의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다. 유한대학교는 2021학년도 유한생명바이오학과를 신설하고 유한양행, 유한화학 등의 유한 가족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교육과정 개발을 시작으로 제약품 분석 및 단백질의약품 생산 관련 실습 기자재 기증 및 인수 등의 신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왔고, 본 사업의 선정을 통해 송도바이오클러스터 등에 위치한 지역사회 바이오제약 관련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바이오 분야의 산학연관 거버넌스 토대를 확장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내 구축된 유연학사제도 및 융복합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분야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개발·운영, 현장미러형 실습실 구축 등의 기반환경 조성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전문기술인재 양성 및 지역산업 현장밀착형 인재가 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최초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수 기관 표창 수상

유한대학교가 2020년 11월 11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관하는 '2020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 사례 시상식'에서 대학 최초로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균형발전사업 시상식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달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와 범 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평가하여 유공을 포상하는 국내 최대의 지역사업 유공자 시상식으로 유한대학교는 대학 기관으로는 최초로 수상하는 큰 쾌거를 달성했다. 유한대학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후진학선도형)은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평생·평등학습 Commuversity 구축'을 목표로 부천-시흥-광명지역의 유일한 직업교육거점센터 교육기관으로 성인학습자, 재직근로자, 사회적약자(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등)들로부터 평생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 학습생들의 창업 및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성과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유한대학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후진학선도형)의 일환인 '평생직업교육의 기회, 전문대학이 지원합니다'는 2019년부터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대학의 우수한 강사진과 최첨단 교육시설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장 친화적인 실무교육을 통해 교육과정 수료 후 창업 및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현중 총장은 "국가균형발전 우수운영기관 선정을 통하여 우리 대학의 우수한 강사진과 최첨단 교육 시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ICT Innovation Awards' 장관표창 수상



유한대학교가 2020년 12월 개최된 '대한민국 ICT Innovation Awards'에서 대학기관으로는 유일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ICT Innovation Awards'는 ICT 융복합·활용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에 표창을 수여하는 포상 제도이다. 유한대학교는 IT Yuhan 4.0 특성화 브랜드로 학과에 IT융합교육 및 IT 인증제를 실시하고, 산업현장 밀착형 IT·메카트로닉스 중견기술인 양성과 상호발전적 산학협력을 통해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유한양행, 바이오헬스 인재양성을 위한 기자재 기증



유한대학교는 3월 2일 가족기업인 유한양행 및 유한양행 중앙연구소로부터 자동으로 세포를 배양하고 배양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포배양기(Bioreactor system) 및 단백질을 분석할 수 있는 정밀 분석기기(Proteome Lab PA800)를 포함한 총 6종의 기자재를 인수 받았다. 기증된 기자재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위한 단백질 대량생산 및 분석을 위한 필수 장비로서, 산학협력을 위한 공동 사용장비로 활용될 뿐 아니라 바이오제조공정 및 실습 등 바이오제약 관련 분야의 현장 밀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실습 교육에 큰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공지능협회와 AI 기술 교류 및 인재 양성 협력



유한대학교가 6월 22일 한국인공지능협회와 AI 기술 교류 및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유한대와 한국인공지능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공지능분야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인공지능 활용직무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협회 네트워크 활용, 학생 취업을 위한 상호 지원 협회 자격증 부여 및 졸업과 동시에 협회 등록의 협력 △상호 발전을 위한 기타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유한 교육 MVP 활동단' 운영



유한대학교가 '2021학년도 유한 교육 MVP (Monitoring for Value-up Project) 활동단 창단식'을 가졌다. 유한 교육 MVP 활동단은 각 학부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학과 대표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 차원과 대학 차원으로 활동 예정이다. 유한대학교는 학생 주도의 유한 교육 MVP 활동단 활동을 통하여 각 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모니터링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교육과정 품질 관리 체계고도화 등 대학 학사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천 단비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수상



유한대학교 VR게임·앱학과 윤현진 학생이 '부천 단비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부천 단비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부천 지역 대학생들에게 기초 창업 교육을 진행, 우수 아이디어와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이번 경진대회에서 윤현진 학생은 '루게릭 환자를 위한 10배 빠른 영우 글자판 APP 서비스'를 선보였다.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 또는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는 루게릭 환자들을 위해 농동자 방향을 인식, 글자를 완성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다.

<6월의 크리스마스> 간식 이벤트, '총장이 쓴다!'



유한대학교가 6월 16일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 도서관 및 뉴스퀘어(NEW Square)에서 500인분의 간식(초코바, 견과류, 음료수 등)을 재학생들에게 나눠주며 기말고사 준비에 지친 재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6월의 크리스마스' 간식 이벤트 행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기말고사 시험과 취업 준비 중인 재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하여 김현중 총장과 학부장들이 공부 중인 학생들을 일일이 찾아가 간식을 나눠주어 더욱 의미가 컸다.

2022학년도 유한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전형별 모집인원

계열	학부	학과명	입학 정원	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수시 1차			수시 2차		수시 1차 기준						
				일반고	특성학교	협약반	일반고	특성학교	전문대 졸업자	농어촌 출신자	수급자/차상위	서해 5도	외국인/재외국민	재직자	
자유전공학과			30	21	3	-	2	1	3	-	-	-	3	3	
공학	기계	기계공학과	70	47	7	2	8	2	3	1	2	1	3	3	
		기계설계학과	70	45	7	2	9	3	3	1	2	1	3	3	
	전기	3D프린팅금형학과	35	20	6	2	3	1	3	-	2	1	3	3	
		전기공학과	70	47	7	2	8	2	3	1	2	-	3	3	
	전자	전자공학과	70	45	11	-	8	2	3	-	2	-	3	4	
		자동차공학과	35	23	5	-	3	1	3	-	1	-	3	3	
	공학	산업안전학과★	산업안전학과	35	22	3	-	5	2	3	-	2	-	3	3
			건축설비공학과	70	47	8	1	8	2	3	-	2	1	3	3
		IT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70	46	10	-	7	3	3	1	4	-	3	4
			VR게임·앱학과★	70	45	11	-	8	2	3	-	2	1	3	4
공학	IT융합비즈니스학과	IT융합비즈니스학과	70	47	9	-	8	2	3	-	1	-	3	3	
		정보통신학과★	70	45	9	-	9	3	3	1	2	1	3	3	
	인공지능융합학과★	인공지능융합학과	35	23	3	2	3	1	3	-	2	-	3	3	
		산업디자인학과	70	47	9	-	8	2	3	1	2	1	3	3	
예체능	디자인 학부	시각디자인학과★	70	47	9	-	8	2	3	-	4	1	3	3	
		실내건축학과★	70	47	8	2	8	2	3	1	2	-	3	3	
		애니메이션영상학과	70	47	8	-	8	3	3	1	3	1	3	3	
		패션디자인학과★	70	48	3	-	13	2	3	-	2	-	3	3	
자연 과학	건강 생명 학부	식품영양학과	35	23	5	-	3	1	3	1	2	-	3	3	
		유한생명바이오학과★	70	47	9	-	8	2	3	-	4	-	3	3	
		의료뷰티학과 스킨케어전공	35	23	5	-	3	1	3	-	3	-	3	3	
		의료뷰티학과 뷰티화장품전공	35	23	5	-	3	1	3	-	3	-	3	3	
인문 사회	지식 서비스 학부	호텔관광학과	70	45	11	-	8	3	3	1	4	1	3	4	
		호텔외식조리학과	70	47	9	-	8	2	3	1	4	1	3	4	
		글로벌비즈니스학과	35	21	4	-	5	2	3	-	2	-	3	2	
		글로벌비즈니스학과	35	21	4	-	5	2	3	-	2	-	3	2	
		글로벌비즈니스학과	35	21	4	-	5	2	3	-	2	-	3	2	
		중국비즈니스전공	35	21	4	-	5	2	3	-	2	-	3	2	
		경영학과 경영정보전공	35	23	5	-	3	1	3	-	2	1	3	2	
		경영학과 유통물류전공	35	21	4	-	5	2	3	-	2	1	3	2	
		경영학과 세무회계전공	35	23	5	-	3	1	3	1	5	1	3	2	
		경영학과 항공경영전공	35	23	5	-	3	1	3	-	2	1	3	2	
인문 사회	지식 서비스 학부	경영학과 광고미디어경영전공	35	23	5	-	3	1	3	-	2	1	3	2	
		보건의료행정학과★	70	47	9	-	8	2	5	2	5	1	3	4	
		보건복지학과★	70	47	9	-	8	2	3	-	6	1	3	4	
		아동보육학과	70	49	9	-	7	2	3	-	4	1	3	4	
합계			1,920	1,265	239	13	217	64	107	14	91	19	105	106	

※ 모든 학과 면접 실시하지 않음 ※ ★ 표는 3년제 학과 ※ 수시 복수지원 없음

※ 수시 정원 내 충원등록 미충원 인원은 차수(1-2차), 전형(일반고-특성학교) 간 교차 충원 가능

※ 수시 충원등록 마감 후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모집함

※ 수시 1차 정원 외 특별전형의 미충원 인원은 수시 2차, 정시모집 순으로 각각 이월하여 모집함

※ 자유전공학과 전공 배정 시 학사학위 운영학과는 배정 인원 제한 가능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특별전형,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순수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은 위 인원수와 상관없이 모집인원이 무제한임

낮은 등록금, 높은 장학금!

전형일정

구분	수시 1차	수시 2차	비고
원서접수	인터넷 2021.09.10(금) ~ 10.04(월) 24시	2021.11.08(월) ~ 11.22(월) 24시	www.uwayapply.com www.jinhakapply.com
	교내창구 2021.10.01(금) ~ 10.04(월) 10시~17시	2021.11.19(금) ~ 11.22(월) 10시~17시	유재서관1층 입학지원센터 방문
필수(추가)서류 제출마감 (해당자에 한함)	2021.09.10(금) ~ 10.05(화) 17시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2021.11.08(월) ~ 11.23(화) 17시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합격자 발표	2021.10.28(목) 14시	2021.12.09(목) 14시	입학홈페이지 → [합격자조회]에서 개별 확인
최초합격자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2021.12.17(금) 09시 ~ 12.20(월) 16시	2021.12.17(금) 09시 ~ 12.20(월) 16시	야간/휴일 납부 가능, 국민은행 전국지점(개별 가상계좌 이용)
충원합격자 발표	2021.12.20(월) ~ 12.29(수)	2021.12.20(월) ~ 12.29(수)	개별통보(전화충원)
충원합격자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2021.12.20(월) ~ 12.29(수)	2021.12.20(월) ~ 12.29(수)	등록기간은 개별통보 시 별도 지정, 국민은행 전국지점 (개별 가상계좌 이용)
최종 등록 (잔여등록금 납부)	2022.02.09(수) 09시 ~ 02.11(금) 16시	2022.02.09(수) 09시 ~ 02.11(금) 16시	예치금 제외금액, 야간/휴일 납부 가능, 국민은행 전국지점 (개별 가상계좌 이용)

※ 수시모집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 중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 후 최종 등록기간에 잔여등록금(예치금 제외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 필수(추가)서류 제출처 : (우.14780)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590 유한대학교 입학지원센터(유재서관1층)

※ 유한대학교 입학홈페이지 : <https://sky.yuhan.ac.kr>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및 전형요약

구분	2021학년도 (변경 전)	2022학년도 (변경 후)
학과명 변경	기계공학과 기계시스템전공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전공	기계설계학과
	3D프린팅금형공학과	3D프린팅금형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산업안전보건융합학과	산업안전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학과
	테크노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학과
	테크노산업디자인학과 인테리어디자인전공	실내건축학과
	i-패션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호텔관광·외식조리학과 호텔관광전공	호텔관광학과
호텔관광·외식조리학과 외식조리경영전공	호텔외식조리학과	

구분	학과	전공명	학제
전공 분리	의료뷰티학과	스킨케어전공	2년제
		뷰티화장품전공	2년제

구분	학과명	2021학년도 (변경 전)	2022학년도 (변경 후)	
학제 변경	산업안전학과	2년제	3년제	
		실내건축학과	2년제	3년제
		시각디자인학과	2년제	3년제

구분	2021학년도 (변경 전)	2022학년도 (변경 후)
전형방법	수시 차수별 2회 복수지원 가능 (수시 1차 2회, 수시 2차 2회 총 4회)	수시 차수별 복수지원 불가 (수시 1차 1회, 수시 2차 1회 총 2회)



누군가 먼저 가야하는 길.

유한양행이
인류건강의 길을
앞서갑니다

유한이 가야하는 길.

국민이 사랑하고, 국민과 함께 자란 기업 유한양행
지난 90여년 동안 이어진 정직과 성실의 기업문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지금의 유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합니다.
혁신적 신약개발을 통한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도약, 대한민국을 넘어
모든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다가올 100년에는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한양행